ISSN 2384-373X

문화 만개

창간호

vol. 01

2015.07

문화만개 | 창간호 vol.01 2015.07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

www.dscf.or.kr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어짇고 선한 이웃 ♡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특강

꿈쇼 Show

"꿈쇼"는 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멘토를 초청하여 **성공스토리**를 들려주고, 학업, 진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좋은 추억과 동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1기 7월 21일 음악으로 보는 세상 | 조윤범(바이올리니스트, 콰르텟 엑스)
7월 23일 유쾌한 이노베이션 | 정효찬(한양대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7월 28일 공부해서 남주자-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 김설진(현대무용가, 댄싱 9 시즌 2 최종우승자)
7월 30일 인문적 상상력과 디자인 | 임헌우(계명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저자)

2기 8월 4일 음악가의 삶, 음악가의 꿈 | 권순훤(피아니스트, 네오무지카 대표)
8월 6일 드라마와 행복한 인생 | 김중효(계명대 연극예술과 교수)
8월 11일 인문학으로 재미있게 살기-장자 | 명로진(작가, 영화배우)
8월 13일 자동차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디자인경영 | 구상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교수)

일정 | 7, 8월 중 매주 화, 목 11:00 **접수** | 6. 8(월) ~ 기수별 200명 한정 선착순
장소 |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참가비** | 무료 (신청방법 : 기수선택 후 개인 또는 가족단위 신청 (차시별 신청도 가능))

| 주최 |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 문의 | T. 584-8721~2 www.dscf.or.kr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2010 에딘버러 페스티벌 ★★★★★ | 2011 에딘버러 페스티벌 ★★★★★ | 2011 에딘버러 페스티벌 SOLD OUT | 2011 SIX STAR AWARD NOMINATE | 2014 멜버른코미디페스티벌 디렉터초이스 AWARD | 2015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 SOLD OUT

세상을 웃기는 꿈!

웅알스

BABLLING COMEDY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2015.7.24(금) 저녁 7시 30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후원 복권위원회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http://www.ticketlink.co.kr/ 티켓 20,000원 문의 053-584-8719

목차

Contents

발행인 |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 이병배
기획/편집 | 김은주, 김은미, 김경숙, 이주현
발행일 | 2015년 7월 3일
발행처 |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대구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 2F
대표전화 | 053)584-9711~2
홈페이지 | www.dscf.or.kr
디자인/제작 | 밝은사람들 053)652-5700

2015년 VOL.1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꽃을 피우며
6.

| 문화의 꽃을 피우다_달서문화재단 이사장 곽대훈
| 문화만개 발간을 축하하며_달서구의회 의장 배보용

문화를 쓰다
8.

| [미술] 선비 서직수, 초상화에 담긴 우리의 긍지_이성낙
| [인문학] 삶의 딜레마를 그린 존재론적 성찰_이현우
| [음악] 음악, 미술을 만나다_권순훤

[특집]
Culture & Art
22.

| 러시아의 고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닐다_박정곤

예술(人) 그리고 만남
32.

| [공연]
이현의 「만쟈레 칸타레 아모레」 행복을 선사하다
고베에서 날아온 남성 6인조 '퍼머넌트 피쉬'
피아니스트 권순훤의 매력 콘서트

| [전시]
류재하, 임창민의 미디어아트 세계
조각가 이용재를 만나다

문화, 여행을 떠나다
46.

| '격정'을 담은 그림과 '평온'을 추구한 그림_김영동
| 연극 같은 인생을 꿈꾸며_정성희
| 「시간을 멈추는 드로잉」 이야기_리모

열매를 맺으며
62.

| 단신

발간사

문화의 꽃을 피우다

'밉게 보면 /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 시인 이채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

달서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발전적이며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하나씩 시도해나가고 있는 달서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전문지인 '문화만개(文化滿開)'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창간호인 만큼 무게감 있는 인문학 칼럼에서 재미있는 에세이와 여행기를 비롯해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펼쳐진 공연 · 전시의 주인공인 연주자와 작가들의 인터뷰까지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진 '문화만개'는 예술인과 지역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아우르는 문화예술 전문지로 탄생했습니다.

'사람을 꽃으로 여기고, 그 꽃향기로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시인 이채의 시처럼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그 문화의 향기로 '어질고 선한 세상'을 이뤄가는 따뜻한 움직임을 '문화만개'에 담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품격 있는 공연 · 전시와 예술인의 생생한 스토리는 물론,
책 속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장소와 의미 있는 공연이 펼쳐진 현장까지
안테나를 세우고 연계해 감동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야기를, 지면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이야기들이 '문화만개'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매력적인 향기에 많은 독자들이 매료되길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 이사장 **곽대훈**

축 사

문화만개 발간을 축하하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짙어가는 녹음과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에
(재)달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전문지 '문화만개'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달서문화재단이 설립 이래 61만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문화와 예술은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케이팝(K-POP) 문화가 세계 곳곳에 한류문화를 전파하듯
다양한 우리나라 문화가 곳곳에서 국가 브랜드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에 창간되는 '문화만개' 역시 구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이 더욱 화합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달서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문화만개' 발간에 참여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큰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구의회 의장 **배보용**

선비 서직수(徐直修)의 초상화에 담긴 우리의 긍지

서직수(1735~1811)의 초상
인면은 이명기가, 몰체는 김홍도가 그렸다

글 이성낙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조선시대를 초상화문화(肖像畵文化) 시대(이태호, 「옛 화가들은 우리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 2008)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도자기, 국악, 서예 같은 다양한 문화장르 가운데에서도 초상화가 나름대로 아주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조선시대 초상화의 미술사적 의미에 깊은 관심을 갖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600여 점의 조선시대 초상화 중에서도 필자가 설렘과 함께 끝없는 찬사를 보내며 가장 주목하는 작품은 서직수(徐直修, 영조 11년 1735~순조 11년 1811) 초상화이다.

필자는 지난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해 개최한 〈초상화의 비밀〉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전시회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큰 전시회를 주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은 행사를 알리는 홍보용 걸개(20x15m)에 서직수 초상화를 담았다.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선시대 초상화 가운데 서직수 초상화가 갖는 대표성과 그 미술사적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사인(被寫人)은 대부분 좌상(坐像)에 자신이 관직 시절 입었던 관복 차림인 경우가 많다. 물론 간혹 전통 한복 차림에 좌상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서직수 초상화는 예사롭지 않다. 초상화 속 서직수는 모자인 동파관(東坡冠)에 고운 미색(米色) 도포(道袍)를 입고 아래 가슴 높이에는 검은색 광다회대(廣多繪帶)를 두르고 버선발로 서 있는 모습이다. 요컨대 평상복을 입은 기품 있고 단아한 유학자의 전신상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조선시대 초상화 중 몇 안 되는 입상화(立像畵)라는 점에서 희귀성이 있다. 아울러 서직수 초상화는 당대 최고의 도화서화원(圖畵署畵員)인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가 몸체, 즉 의복을, 화산관 이명기(華山館 李命基, 출생 및 사망 연도 미상)가 얼굴을 각기 나눠 그렸다는 데 또 다른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왕의 어안(御顔)을 그린 어진(御眞)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의 성격이 짙다. 이를테면 공재 윤두서(恭齋 尹斗緖, 1668~1715)나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 1713~1793)이 남긴 자화상 몇 점을 제외하고 피사인이 자기 초상화를 주문 제작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직수 초상화에는 상단 화제(畵題)의 글을 서직수 자신이 직접 고친 게 눈에 띈다. 이는 서직수 본인이 화가를 초대해 초상화를 그리게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이 작품이 왕의 하사품이었다면 감히 자의로 초상화에 '손을 댈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당연히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서직수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자손이었기에 이처럼 자신의 초상화를 당대 최고의 화원 화가 두 사람에게 '주문 제작'할 수 있었을까?

서직수의 본관은 달성(達城)으로, 권문세가인 일명 대구 서씨 집안 자손이다. 자는 경지(敬之), 호는 십우헌(十友軒)이다. 사료에 따르면 그는 비교적 짧은 관직 생활을 거두고 시서화(詩書畵)를 즐기는 선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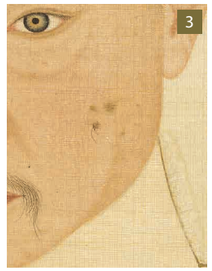
일생을 지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궁중 화가로 꼽히던 김홍도와 이명기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할 정도로 재정과 가문의 뒷받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는 사회 정서적으로 초상화를 자유롭게 주문 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면에서도 이 작품은 조선시대 초상화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서직수 초상화를 보고 있노라면 김홍도라는 대화가의 붓놀림 소리가 들려오는 듯싶다. 미색 도포가 피사인의 몸을 여유롭게 감싸고 있는 가운데 조선 유생의 품위 있고 올곧은 자세가 돋보인다. 大화가는 이처럼 '절제의 미(美)'로 화폭에 절후(絕後)의 명품을 남겼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아야 한다(華而不侈)"는 명구가 절로 떠오른다. 실로 우리 조선 초상 회화사의 백미(白眉)가 아닐 수 없다.〈사진 1〉

그런데 이 초상화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매우 색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피부과학을 전공한 필자에게 서직수 초상화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2

얼굴의 왼쪽과 눈 밑에 몇 개의 작은 검버섯(脂漏角化, Seborrhoic keratosis),
왼쪽 볼에 3개의 색소모반(色素母斑, Nevus pigmentosus)이 보인다



3

모발 및 색소 모반
(毛髮 및 色素母斑, Nevus pilosus et pigmentosus) 중
한 개의 모공(毛孔)에서 2개의 털이 나오는
'쌍둥이 모발(Pili multigemini)'이
선명하게 묘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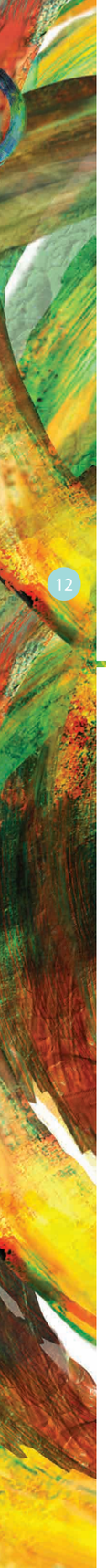
서직수 초상화를 그린 김홍도와 이명기는 피사인의 전신 입상을 화폭에 담았다. 따라서 초상화의 핵심인 얼굴 부위의 면적이 여느 초상화에 비해 '협소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처럼 제한된 부위에서도 시서화(詩書畵)를 즐긴 유생의 얼굴 표정을 잘 묘사했다는 점에서 화가 이명기의 특출한 필력을 엿볼 수 있다. 화가는 62세(1796년)인 서직수의 안면을 그리면서 당시 고령의 나이에 접어든 얼굴 피부를 정확히 묘사했다. 요컨대 피부 노화에 따라 흔히 나타나는 검버섯 10여 개를 옅은 색으로 세심히 그려놓았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제작한 다른 초상화와 비교할 때 서직수의 얼굴 피부 상태는 유별나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봐도 그렇다. 특히 피부과학 전문의 시각에서 서직수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청아하다.〈사진 2〉

화가 이명기는 피사인의 얼굴에 유독 크고 검은 점 3개를 남겼다. 만약 서직수 초상화에 '검은 점'이 없다면 이 작품은 아마도 조선시대 백자 그릇(白瓷器)에 비유해도 무난했을 성싶다. 게다가 이명기는 검은 점의 모공(毛孔) 하나에서 2가닥의 털이 나온 것을 놓치지 않고 정교하게 그려 넣었다.〈사진 3〉 임상적으로는 이를 '쌍둥이 모발(Pili multigemini)'이라고 하는데, 실로 극히 드물게 보는 사례이기도 하다. 현대미술의 한 축인 극사실주의(極寫實主義, Hyperrealism)의 효시를 보는 듯싶기도 하다. 화가는 어떠한 가감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만 정직하게' 작품을 그렸을 뿐이다. 여기에 대화가 이명기의 위대함이 있다.

아울러 초상화를 주문 제작한 장본인인 서직수도 화가의 이런 화풍을 '마땅히 그러려니'하고 받아들였다. 여기서 필자는 올곧음을 추구한 당시의 선비정신, 즉 조선의 시대정신을 본다(註 :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 병변 연구〉 중에서).

우리 선조들이 추구한 높은 정신세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서직수 초상화. 필자는 이 작품의 피사인은 물론 大화가 두 명에게 경의와 더불어 고마움과 설레는 긍지를 느낀다.

이성낙
– 뮌헨의과대 졸업
– 프랑크푸르트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 가천대 명예총장, 의 · 악사평론가회 회장
(사)현대미술관회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삶의 딜레마를 그린 존재론적 성찰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고

글 이현우 | 출처 영화 '프라하의 봄'

삶은 얼마만큼의 무게를 갖는가.
아니 다시 질문해보자.
삶은 얼마만큼의 무게를 갖는 것이 적당한가.
가벼운 삶과 무거운 삶,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체코 출신의 프랑스 작가,
아니 그 자신의 바람대로라면
그냥 '보헤미아의 작가'이자 '중부유럽의 작가' 밀란 쿤데라가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1984)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그에게 이런 물음의 물꼬를 터준 이는 철학자 니체다.
다른 무엇보다도 '영원회귀'를 설파한 철학자 니체.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이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삶의 무게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이 갖는 수수께끼를 숙고해보는 데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상이기에 '신비로운 사상'이다. 그에 따라 많은 해석이 제출된 건 당연한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생각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간주하면 곤란하다는 주장까지 편다. 니체는 중요한 철학자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원회귀 사상만큼은 그냥 농담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철학자들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말의 배경이다.

쿤데라는 이 문제적인 영원회귀 사상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경합에 나선다. 그는 영원회귀가 주장하는 바를 뒤집어서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만약 영원회귀가 없다면 인생은 말 그대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한 번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란 너무도 덧없어서 아무런 무게감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영원회귀는 바로 그런 대조효과를 유발한다. 영원회귀라면 '무거움' 옆에서 일회적인 삶은 '가벼움'을 면치 못한다. 그것도 너무도 가벼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가벼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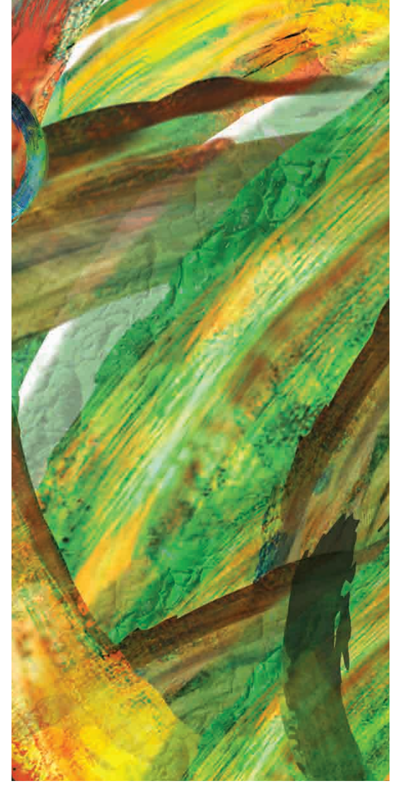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 번뿐인 삶 대신에 영원회귀의 삶을 선택해야 할까. 하지만 이 또한 만만찮다. "우리 인생의 매순간이 무한히 반복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 영원성에 못 박힌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영원회귀 사상은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토로했다. 어떤 장면에서인가. 차라투스트라가 달밤에 개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다가가 보니 젊은 양치기가 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묵직한 검은 뱀을 입에 물고 있어서였는데, "물어뜯어라! 대가리를 물어뜯어라!"란 그의 충고를 듣고 양치기는 뱀을 물어뜯어서 뱉어버린다. 그러자 양치기는 더 이상 양치기가 아닌 '변화된 자'가 되어 웃음을 터뜨린다.

차라투스트라가 본 이 환영에서 양치기의 목구멍을 문 뱀은 바로 영원회귀 사상을 뜻한다. 그것이 목구멍에 걸려 삼키지도 뱉어내지도 못해서 곤경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차라투스트라 역시 영원회귀 사상 때문에 한바탕 앓고 나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걸 보면 젊은 양치기는 차라투스트라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영원회귀라는 위험한 사상을 수용 · 극복하고 나서야 차라투스트라는 영원회귀를 가르치는 자가 된다. 그는 영원회귀의 운명을 긍정하라고 가르친다. 자신의 인생이 반복되어도 좋다고 긍정하는 자, '다시 한 번!'이라고 말하는 자가 다름 아닌 초인이다. 니체에게서 영원회귀와 초인은 그렇게 만난다. 그것은 '운명애'를 매개로 해서다.

Milan Kundera

'한 번 일어난 일은 없는 일과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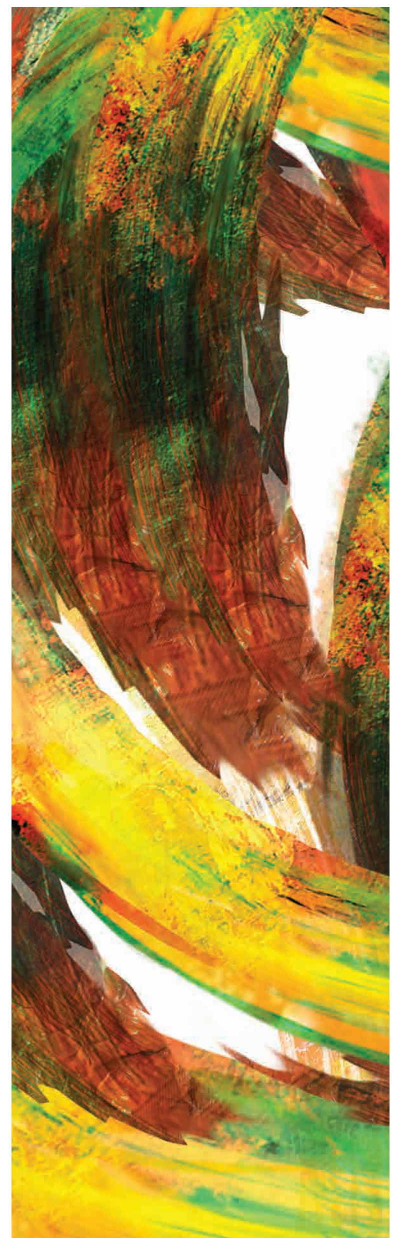
니체와 쿤데라는 삶의 무거움과 가벼움의 대조를 좀 더 오래 끌고 간다. 무거운 짐은 비록 우리를 짓누르면서 바닥에 깔아 눕히지만, 동시에 삶을 생생하게 만든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지상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우리에게 현실감을 부여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짐도 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쿤데라는 생각한다.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바로 그런 선택적 상황에 놓인 주인공 토마시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소설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프라하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토마시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들까지 떼어주고 부모와도 관계를 끊은 채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바람둥이다. 가벼운 삶의 표본이라고 할까. 그는 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무거움을 피하기 위해 '에로틱한 우정'이라는 걸 고안해낸다. 사랑을 나누더라도 서로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연달아 한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3번 이상은 안 되며 수년 동안 한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적어도 3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3의 법칙'을 수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테레자를 만나면서 토마시는 고민에 빠진다. 보헤미아의 한 작은 마을에 진료차 내려갔던 그는 우연히 카페의 여종업원 테레자를 만나는데, 그로부터 열흘 후에 테레자가 프라하로 그를 찾아온다. 둘은 그날로 동침을 하지만 테레자가 독감을 앓게 된 탓에 바로 떠나지 못하고 그의 집에 일주일을 더 머물다가 내려간다. 테레자는 마치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담겨 그의 인생에 도착한 듯했고, 그는 이것이 특별한 인연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여자든 간에 한 여자와는 살 수 없다고 믿어온 터이지만, 테레자가 떠난 뒤에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머리를 싸매게 된다. "테레자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나을까?"라는 고민 때문이다.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해보는 것이겠다. 그렇다면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지구라는 '무경험의 행성'에서 우리는 아무런 리허설도 없이 무대에 오른 배우 신세다.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할 만한 기준도 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때 토마시가 되뇌는 독일 속담이 "아인말 이스트 카인말(Einmal ist Keinmal)"이다. 한 번 일어난 일은 전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도 된다. 우리 인생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토마시는 결국 테레자와의 동거를 선택한다. 그는 비록 다른 여자와 정사를 나누는 것과 함께 잔다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열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테레자와의 동거 이후에는 술의 도움 없이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된다. 그런 토마시의 모습을 보고 연인 중의 한 명인 사비나는 바람둥이 토마시의 그림자 위에 낭만적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이 비친다고 말한다. 즉 바람둥이 돈 주앙인 토마시는 한편으로 테레자만을 생각하는 트리스탄이기도 하다. 비유컨대 돈 주앙이 가벼운 사랑의 대명사라면 중세 서사시의 주인공 트리스탄은 무거운 사랑, 운명적인 사랑의 화신이다.



토마시와 테레자는 '프라하의 봄'의 여파로 스위스의 취리히로 건너가지만 테레자는 토마시의 바람기를 더는 참지 못하고 혼자서 프라하로 돌아간다. 이때 토마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테레자에게 돌아가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 그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은 베토벤의 사중주 곡에 쓰인 가사 "에스 무스 자인(Es muss sein)"이다. "그래야만 한다"는 뜻의 이 가사는 '어려운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는 테레자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함으로써 그의 운명을 짊어지기로 한다.

이렇듯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진동하는 토마시의 삶은 "한 번뿐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와 "그래야만 한다" 사이에 걸쳐 있는 삶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 옳은가? 오직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러한 가치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닌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삶의 무거움은 부담스러워하면서 삶의 가벼움은 구제하고자 자주 서성이고 있는 듯싶기 때문이다.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영원회귀 사상에 대한 소설적 성찰이면서 우리 존재의 딜레마에 대한 우아한 묘사다. 쿤데라와 함께 삶은 얼마만큼의 무게를 갖는 것이 적당할지 다시 생각해봐도 좋겠다.

이현우

– 서평가
–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박사
– 전 한림대 연구교수

서평 블로그 _ 로쟈의 저공비행 운영
수상 _ 제50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술부문
저서 _ 「아주 사적인 독서」, 「로쟈의 인문학 서재」 등

음악, 미술을 만나다

글 · 자료 **권순훤**

저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미술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로 음악회를 열어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즐깁니다. 미술과, 음악… 같은 예술 분야이지만, 뭔가 조금은 이질감이 들기도 하는 두 분야이지요.
어린 시절, 예술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우던 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처음 과제곡이 인상주의 작곡가인 드뷔시의 곡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선생님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리 인상주의 음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린 제가 이해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죠. 연주를 들은 선생님께서는 잠시 고민하시다가 서재에서 그림책을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인상주의 미술 작가들의 그림을 보여주셨지요.

"어떤 느낌이 드니?"하고 물으시길래 솔직히 말씀 드렸습니다.
"초점도 잘 맞지 않고, 뭔가 뿌옇고, 안개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연주해보렴"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맘에 든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인상파 음악도 그러한 느낌이 살아나야 한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느새 연주자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그때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아… 미술과 음악이 이토록 관계가 깊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양한 예술작품들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지요. 바로 '사람들의 감동'이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감동의 기준'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차근차근 음악과 미술을 비교해보면서 감상해보니 개인적으로 연주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분야를 연구하다보니 참 재미나는 이야깃거리가 많아서 이제는 강연과 더불어 이렇게 지면을 빌어 글도 쓰게 되었습니다. 첫 이야기는 음악사와 미술사의 시대별 특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비너스의 탄생

서양문화의 어머니 '르네상스'

우선 르네상스(15~16세기) 시대부터 보자면, 르네상스 이전 시대가 어땠는지도 살펴야겠지요? 중세 시대, 절대왕정 시대… 개인의 개성이나 의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지배계층이 세워놓은 규칙(저는 이 규칙이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고, 쉽게 다스리는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귀족이 자신의 여자 하인이 결혼을 하면 자신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야만 하는 '초야권'은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법인가요?)
그때는 다양한 악기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사람의 목소리가 거의 유일한 악기였지요.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르네상스는 서양 문화의 어머니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의 인본주의적 요소로 문화를 중흥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미술, 과학, 건축,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게 되고, 게다가 늘 '필사'로 제작되던 책이 금속활자 발명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생산되고 책으로 만들어진 지식의 대량 생산은 문화의 발달과 확산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서유럽과 비잔틴 제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던 항구도시가 많은 나라였던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족이나, 교황이 지배하는 체제였던 이탈리아는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하여 르네상스 이전부터 중개 무역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 아님에도 커다란 부를 쌓은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큰돈을 벌게 되자, 귀족과 지배계층의 예법이나,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고 발전시키다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귀족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문화에도 아낌없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렌체의 부르주아 가문 중 가장 유명한 메디치가를 일으켰던 '로렌초 데 메디치'는 '피렌체의 숨은 군주'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데 이전 시대에는 예술가들이 왕족, 귀족,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 예술 활동을 했기에 예술작품에 그들의 취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부터는 조금씩 '개인의 취향 – 부르주아의 취향'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인동덩굴 그늘 아래의 루벤스와 이사벨라 브란트

왕이나 귀족, 교황의 후원을 받았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거장들의 그림들에는 종교, 서사적 주제가 많이 쓰였지만, 메디치의 후원을 받던 보티첼리는 로렌초 데 메디치의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작품을 많이 내놓습니다. 특히 비너스의 탄생은 여성의 나체를 아름답게 표현해냈는데, 당연히 이 작품이 그 당시 공개적으로 발표되기가 어려웠겠지요. 메디치가의 어느 거실을 장식하기 위한 그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예술 작품들의 소재가 조금씩 다양해지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역시 조금은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내려오던 그레고리안 성가는 물론 류트라는 악기(기타의 조상)를 위한 기악곡도 작곡이 되고, 르네상스의 끝자락인 1500년대 후반에는 최초의 음악극(오페라의 전신)이 처음 나오기도 하는 등 음악 분야에서도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르네상스 시대에 작곡된 음악들이 요즘에도 자주 연주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나타나는 '바로크'

이어지는 시대는 바로크 시대입니다.(17~18세기) 이때는 르네상스에서 싹튼 개인의 취향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예술작품 주제들의 등장과 훨씬 더 대담하고 다양해진 미술가들의 표현이 사회의 발전과 맞물리게 됩니다.
특히 카라바조 같은 미술가는 현 시대로 비교하면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받을 법한 잔혹한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루벤스가 자신과 부인을 그린 '인동덩굴 그늘 아래의 루벤스와 이사벨라 브란트'와 같은 작품에서 나타난 옷감이나 장신구, 구두와 모자의 디테일을 보면 그림 하나만 봐도 그 그림의 주인공이 어떤 취향인지, 어느 정도 계급의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술작품에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 같은 건반악기가 등장하고, 파이프오르간이 많은 교회에 설치되고,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이 현대에도 연주되는 악기들을 위한 곡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죠.

바흐는 자신의 아들을 위한 연습곡을 작곡하기도 하고, 헨델은 다양한 오페라는 물론 자신의 매우 개인적인 이유로 작곡한 수상음악을 국왕 앞에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사실 수상음악은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지요. 독일의 게오르그 선제후의 궁정 악장이었던 헨델이 영국 런던이 너무 좋아서 런던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립니다. 당연히 게오르그 선제후는 헨델 때문에 무척 화가 났었겠지요. 그리고 헨델은 런던에서 음악가로서 대성공을 거두고, 영국 여왕과도 친하게 지내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죠. 영국의 여왕이 병으로 죽고 나서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게오르그 선제후였거든요. 헨델의 입장에서는 정말 목이 달아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헨델은 묘안을 짜냅니다. 게오르그 선제후가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고, 오케스트라 단원을 배에 탑승시키고, 템즈강에서 뱃놀이를 하는 게오르그 선제후(이젠 영국의 국왕이죠^^)의 배 근처를 맴돌며 그 음악을 연주했지요. 그 음악을 들은 게오르그 선제후(영국 국왕)은 헨델의 노력에 묵혀왔던 화를 풀고 헨델을 다시 그의 음악가로 기용해서 이전과 같은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바로크 시대부터는 미술과 음악에 개인의 취향이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과 삶이 상반되는 고민의 시기

다음 이어지는 근대미술 시대에는 예술가들의 고민이 한층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미술가들에게는 최대의 적이라고 볼 수 있던 '사진'이 등장함으로 '무엇을 그리느냐?'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그리느냐?'로 변하게 되죠. 미술품 거래 역시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어 화가 자신이 직접 개인전을 열거나 그룹전을 열어서 그림을 판매해야 했기에, 미술가들의 빈부격차 역시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일례로 르느와르는 자신의 그림을 두 점 팔면 저택을 살 정도로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만, 반면 모딜리아니는 겨울에 땔감을 구하지 못해 차디찬 작업실에서 세상과 이별하는 슬픈 사실도 있었습니다.

르느와르의 물랭드라갈레트의 무도회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그만큼 세상이 발전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더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과 사회의 니즈를 반영하는 예술작품들이 등장하고 인정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리히텐슈타인은 행복한 눈물을 제작할 때, 만화의 스크린 인쇄기법을 모방하여 직접 손으로 만화인쇄 표면처럼 자잘한 점을 일일이 다 그렸는데, 이는 대중예술과 고급미술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려버린 대단한 시도였습니다.
존 케이지의 4′33″는 피아니스트가 무대로 들어와 아무것도 안하고 4분 33초 뒤에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전위적인 음악이었는데, 그는 이 음악의 1악장에선 청중들의 웅성거림, 2악장에서는 청중들의 당황, 3악장에서는 청중들의 분노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며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음악과 미술, 서로 공통점이 별로 없는 다른 예술 분야로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공통점이 있답니다. 저 역시 요즘 '어떻게 해야 음악공연을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소개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미술작품들과의 연관성을 더 연구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이러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작품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때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지, 작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는지까지 하나하나 생각하다보면 그 예술작품이 한층 더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느 공연장에서든, 미술관에서든 즐거운 감상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저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훤
–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40여 장의 클래식 개인앨범 발매, 60여 장의 음반 프로듀서로 활약
– 이지클래식, 미술관에 간 피아니스트, 체르니 콘서트 등 참신한 공연으로 매진행렬 및 호평
–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 출간, 국립중앙도서관 우수도서 선정 및 베스트셀러 진입
– 다양한 음반, 저술활동으로 활발한 활동 중
– 계명대학교, 신한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서울종합예술학교 출강, 네오무지카 대표로 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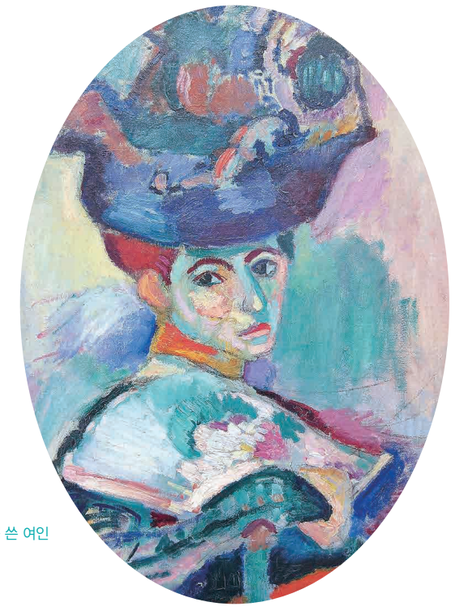
근대 시대 음악가들 역시 예전처럼 궁정이나 귀족에게 안정적인 후원을 받고 활동하기보다는 직접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한층 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

하이든은 귀족의 후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 마지막 음악가였습니다. 뒤를 이어 나타난 천재 모차르트는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한 음악가이지만 재정 매니지먼트 능력 부족으로 말년이 좋지 못했죠(물론 모차르트의 음악은 최고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베토벤에 와서야 음악가가 후원자와의 갑을관계를 어느 정도 허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음악계는 화려한 기교와 멋진 매너로 수천 명을 공연장으로 불러들이는 스타 음악가들이 나타나 득세를 하게 됩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의 시초로 생각될 정도로 많은 팬들을 몰고 다녔지요. 많은 여인들이 그의 연주를 보려고 몰려들어서 연주회장이 미어터질 정도가 되고, 사라사테의 연주를 들으려고 사람들은 몇 시간을 마차를 타고 달려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스타 음악가였으니까요.^^
음악가들 역시 화려하게 성공한 음악가들이 있는 반면에 살아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음악가들도 무수히 존재합니다. 에릭 사티의 경우 지금은 너무나도 사랑받는 음악가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가난을 면치 못했고, 죽고 난 뒤 40여 년이 흘러서야 그의 음악이 인정받기 시작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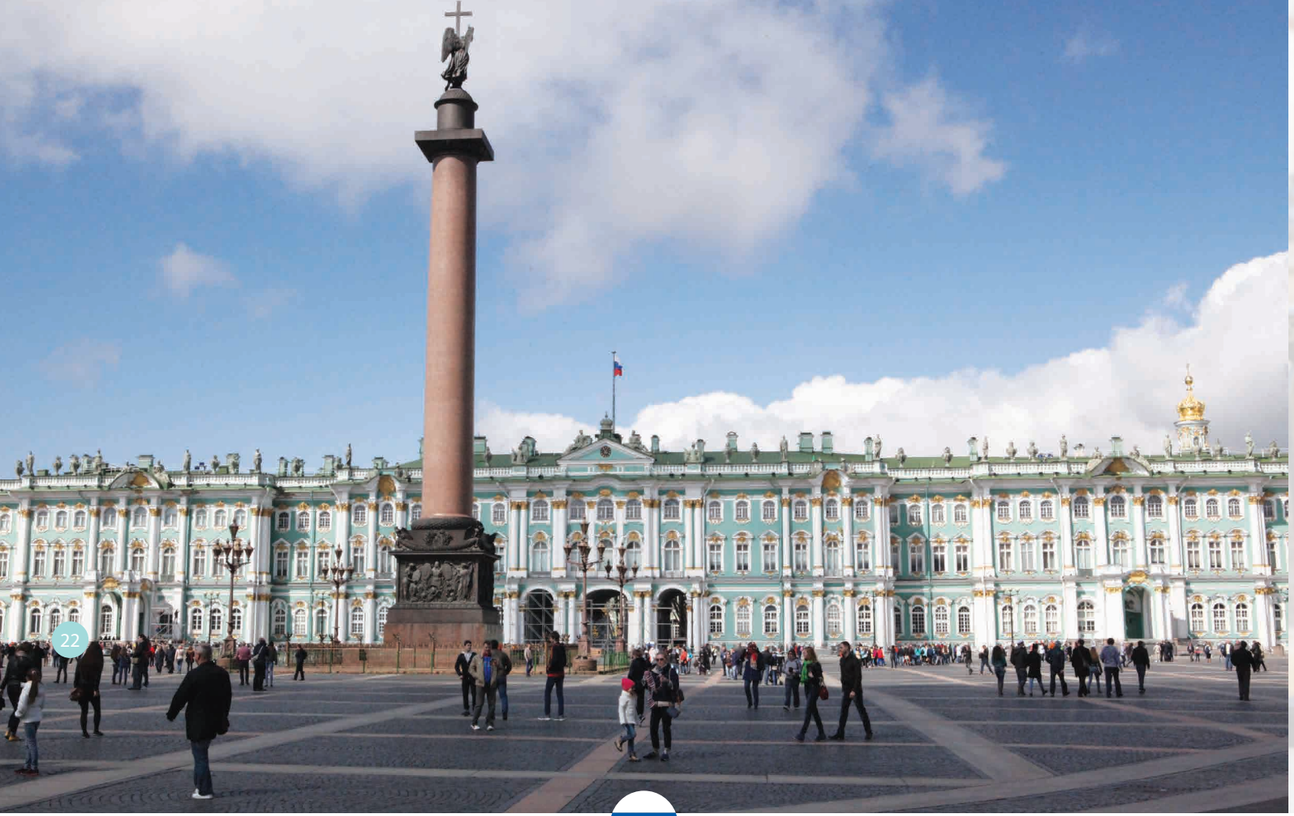
다양한 예술성이 나타나는 시기

1900년대가 되면서 현대 시대로 설명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현대 예술 시대에는 음악이나 미술 모두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통신, 기술의 발달은 사회를 엄청나게 빨리 변화시키게 되고 이 역시 알게 모르게 예술에 그대로 적용되지요.

미술은 마티스를 주축으로 강렬한 색채, 대담한 붓놀림을 중시한 야수파 – 독일의 표현주의 – 몬드리안이나 칸딘스키가 주축이 된 추상미술 – 피카소의 큐비즘 –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 – 앤디 워홀의 팝 아트 등 여러 장르의 예술이 빠른 주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음악 역시 쇤베르크의 무조음악 – 스트라빈스키의 거친 리듬을 중시한 음악, 나중에는 신고전주의 – 존 케이지의 우연성을 기초로 한 4′33″, 카를로스 가르델의 탱고음악, 미국의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전기를 이용한 플러그드 음악이 등장함으로써 무슨 봉인이 풀린 것 마냥 다양한 음악 장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



겨울궁전 광장

백야(白夜)와 예술의 조화로운 만남

러시아의 고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 닐. 다.

글 · 사진 **박정곤**

크론슈타트 해군 성당 내부(왼쪽)와
페테르고프 여름궁전의 전경(오른쪽)

페테르부르크 거리의 악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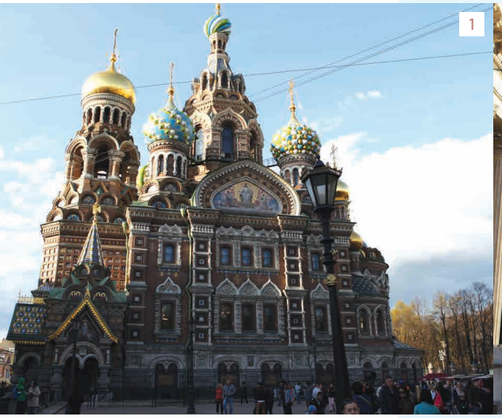
백야,
기다림의 대상

연중 절반 넘게 동풍(凍風)을 마주하며 겨울을 보내야 하는 러시아에서는 한여름의 백야란 진정 기다림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인들은 5월 문턱까지도 흩날리는 눈을 맞으며 볕을 등지고 살아가야하기에 백야의 계절인 여름만큼은 온 종일 따사로운 태양 아래 빛의 예술을 만끽하고픈 열망으로 가득하다.

1980년대에 청춘을 바친 이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영화 〈백야(white nights)〉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소비에트 시대 실제 발레리노로 활동하였던 영화의 주인공 미하일 바리시니코프(니콜라이 역)가 열연하며 선보인 아름다운 신체예술과 이와 더불어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라이오넬 리치가 부른 주제가 〈Say you, Say me〉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 영화의 삽입곡이자 최근 드라마 〈미생〉으로 우리에게 더 유명해진 블라디미르 비소츠키의 노래 〈야생마〉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러시아를 향한 막연한 동경심마저 자아낸다. 영화를 보다 집중해 본 관객들은 이미 알고 있겠으나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 레닌그라드, 즉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이다.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기도 하고 더러는 막연한 설렘으로 다가오겠지만 백야란 러시아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한여름의 일상이다. 길고도 길었던 지난 겨울의 흑야(黑夜)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상트페테르부르크인들은 늦은 밤까지 끊이지 않는 낮의 향연을 즐기고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백주(白晝)의 고요한 풍경 속에 고도의 매력을 물씬 품고 있는 러시아의 보석이자 '유럽으로 향한 창'인 백야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본지의 독자들과 함께 잠시 산책하고자 한다. 아직 백야를 접해보지 못한 이라면 누구라도 좋으니 같이 거닐어 보자.

Saint Petersburg


1

2

3

4

러시아 문화의 중심지, 페테르부르크

어슴푸레 밤의 장막이 사라질 무렵 상트페테르부르크(이하 페테르부르크)는 핀란드만 너머 솟아오르는 태양의 붉은 기운을 한가득 머금은 채 새색시마냥 볼그레한 민낯을 드러낸다. 백야 탓에 이른 시간부터 여명은 밝아오지만 아직 거리에는 오가는 발길이 드물다. 네프스키 대로를 따라 이따금 지나치는 차량의 엔진소리마저 네바강의 출렁이는 강물 소리에 묻혀 새벽의 정적은 본연의 모습을 제법 옹골차게 지켜낸다. 이삼백 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 건물들 새새로 삼삼오오 짝을 맞춘 길고양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도시의 주인인 양 너스레를 떨다 인기척이 느껴지자 총총걸음으로 도도히 시야에서 사라진다. 세월의 무게가 겨운 양 여기저기 떨어져나간 붉은 담벼락이 떠받친 코린트 양식의 처마 끝을 살포시 스치는 바람은 지난 세기 소설 속 주인공들이 거닐던 그곳에서 불어온 듯 신비감을 선사한다.

이처럼 마치 이도공간과도 같이 인적이 드물었던 중심가에도 운하를 따라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카잔 성당의 석주 아래를 감돌기 시작하자 거친 발자국 소리가 짙어갔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삽시간에 네프스키 대로는 문명이 만들어낸 소음을 활기로 삼아 문 앞까지 찾아 온 아침을 유쾌히 반기고 있었다. 이제야 과거 제정 러시아의 절대 왕권을 자랑했던 페테르부르크가 웅장한 고도의 기상을 뽐내며 대도시다운 면모를 제대로 드러낸다.

러시아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표트르 대제 시기인 1703년에 러시아인들은 황제의 명에 따라 수도 천도를 위해 낯선 땅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다. 당시만 하여도 이곳은 문명과는 다소 동떨어진 곳이었으며 땅을 뒤덮은 늪지대로 인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페테르부르크는 뼈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도시 설립과 함께 수많은 이들의 피가 침전되고 극심한 반대가 끊이지 않았으나 황제 표트르 1세는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천도를 이루어내고 만다. 그런 탓에 아직도 학계에서는 도시 명칭의 유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표트르 대제의 이름을 따서 페테르부르크라 불렀다는 설이 주류를 이루지만, 당시 반대했던 성직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표트르 대제가 성 베드로의 힘을 빌려 음침한 늪지대 땅의 사악한 기운을 누른다 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 즉 '성 베드로의 도시'라 명했다는 설도 그 무게가 적지 않다. 아무튼, 만약 당시에 그가 자신의 의지를 꺾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찬란한 문화의 보고를 보지 못하는 유감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다.

페테르부르크는 시내 중심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을 만큼 그야말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내 한복판의 네프스키 대로를 가로지르는 운하의 오른쪽 모퉁이에 위치한 〈피의 사원〉은 오색 지붕의 화려함을 더한 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한참 동안 머무르게 한다. 정식 명칭이 〈그리스도 부활사원〉인 이곳은 외관이 모스크바의 바실리 성당과 유사하지만 벽면 곳곳에 촘촘히 붙여진 모자이크화로 독특하고도 고유한 미를 자랑한다. 1883년부터 24년에 걸쳐 건립된 이곳은 1907년에 다다라서야 문을 열 수 있었다.

1. 피의 사원 전경
건축 양식이 모스크바의 바실리 성당과 유사하다
2. 네프스키 대로의 카잔 성당
3. 네바강 전경
4. 페테르부르크의 명물 스트렐카
네바강변에 위치한 붉은 기둥이 인상적이다

안토니오 카노바의 작품 큐피트와 푸쉬케의 키스(1794–1797)

개혁세력이 투척한 폭탄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알렉산드르 2세의 피가 흘려진 자리에 세워졌다 하여 피의 구원 사원 혹은 피의 사원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다. 또한 사원 앞을 흐르는 그리보예도프 운하와 이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로수 길로 인해 이곳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페테르부르크 시민들도 가장 즐겨 찾는 곳이라며 거리공연을 하던 한 가객이 전했다.

네프스키 대로의 오른편을 피의 사원이 장식하고 있다면, 그 왼편은 〈카잔 성당〉이 굳건히 지키고 있다. 길게 열을 이은 굵은 석주들과 부채처럼 펼쳐진 건물의 양식은 고대 그리스의 신전을 연상케 하나,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채 밤낮없이 기도를 올리는 러시아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러시아 정교를 향한 애착과 강한 신앙심이 자연스레 느껴진다. 건축가 안드레이 보로니힌이 1801년부터 장장 10년에 걸쳐 완성한 이곳은 카잔의 성모상을 기리고 있으며,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감명을 받은 황제 파벨 1세의 명으로 그와 유사하게 축조되었다 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1762년 예카테리나 여제가 남편인 표트르 3세를 하야시키고 페테르부르크에 입성하여 전제군주로 대관식을 거행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네프스키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는 쌍두마차 격의 두 사원 덕분에 백야의 페테르부르크는 좀처럼 활기를 잃지 않는다.

고도(古都), 문학과 예술을 말하다

그럼에도, 동전의 전면과 배면처럼 대로의 뒷길은 아직도 19세기이다. 고로호바야(Gorokhovaya) 거리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다 보면 저 멀리 어느 한 곳에서 금방이라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나타나 자신의 시를 읊조리며 인사를 건넬 듯하다. 실제로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로 친숙한 푸시킨과 그의 숙적 단테스가 운명적으로 만났던 비엔나 카페는 아직도 이 거리에서 성업 중이며, 그의 소설 〈스페이드의 여왕〉의 주인공이 살던 집도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문학가들이 그려낸 소설 속 세상을 지나 옆으로 몇 발걸음만 더 가면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백조의 호수〉라는 대작을 남긴 표트르 차이코프스키와 그의 동생 모데스트가 살았던 아파트가 나온다. 비록 살다간 시대는 다르지만 페테르부르크 가슴 깊이 각인된 이들의 흔적은 후세들의 뜨거운 경애로 생동감을 상실할 기회마저 가지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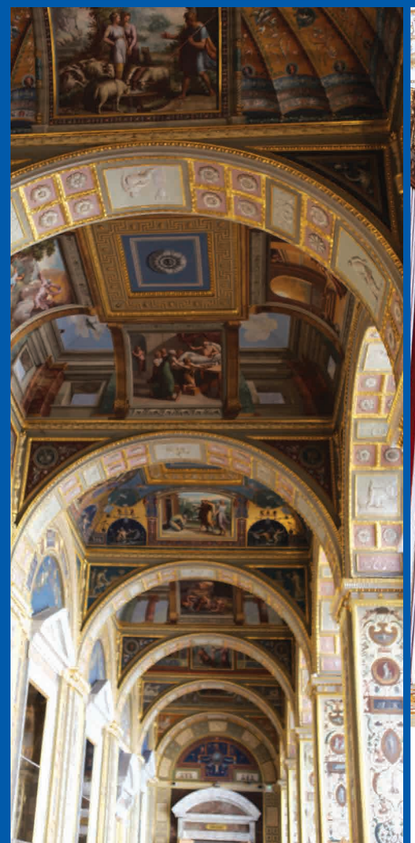
지하철을 타고 중심에서 잠시 벗어나 본다. 시내와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도시 한 켠에 자리한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동상은 금방이라도 일어서 왈츠를 연주할 듯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 잡으며 행인들이 바치는 장미 송이에 음악으로 예를 표한다. 20세기 초중반 세계 음악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쇼스타코비치가 살았던 곳이다 보니 동상 앞 수북이 쌓인 꽃다발들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런 모습이 아닌가 하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당시에도 쇼스타코비치가 피난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사랑했던 도시 페테르부르크를 지키기 위해 의용군을 자청했다는 일화는 이곳 사람들에게 빈번히 회자되곤 하며, 이런 의미에서 그가 남긴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는 음악으로 조국을 지켜낸 쇼스타코비치의 예술혼이 승화된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페테르부르크는 말 그대로 문학과 예술로 점철된 낭만의 도시라 할 수 있다. 가령, 1866년 명작 〈죄와 벌〉을 창작하며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는 페테르부르크의 거리 곳곳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 놓았다. 그 덕분에 지금도 소설 속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냐가 살던 곳이 실제 거리에 오버랩 되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 주인공이 거닐던 거리를 따라 걷다보면 자신 또한 소설의 한 모퉁이에 서있는 듯 묘한 기분이 느껴질 정도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비판적 사실주의를 이끌었던 그가 저작한 소설 〈백야〉는 국내외 많은 독자를 두고 있으며 페테르부르크의 백야를 더욱 널리 알린 작품이기도 하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백야를 두고 문단에 큰 화두를 던졌다면, 러시아의 또 다른 대문호 니콜라이 고골은 이미 그보다 수십 년 앞서 페테르부르크의 진풍경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가득 담아 놓았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고 극찬할 정도로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던 고골은 우크라이나 중부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1828년 겨울 페테르부르크로 이사 온 직후부터 이곳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작품을 배출했으며 그가 남긴 소설집 〈페테르부르크 이야기〉를 비롯하여 〈코〉, 〈외투〉, 〈죽은 혼〉과 같은 작품은 세계 문학계에 실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의 뒤를 이어 수 세기에 걸쳐 수많은 작가들이 이곳을 소재로 작품을 쓴 덕분에 러시아 문학계에는 심지어 '페테르부르크 문학'이라는 독립된 문예사조이자 전문용어가 생성되었을 정도이다.

쇼스타코비치 동상. 페테르부르크 곳곳에서는 유명 예술가와 음악가, 작가들의 동상과 그들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운하를 따라 운항하는 유람선들



Hermitage

에르미타주 니콜라이 2세 서재 / 내부 복도 / 예카테리나 여제의 왕좌

에르미타주(Hermitage)

이렇게 제정 러시아 문화의 중심인 페테르부르크의 곳곳에는 문학과 예술에 기반을 둔 수많은 명소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 결정체라 불리는 곳은 따로 있으니 바로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다. 러시아는 우리와 달리 종착지가 역의 명칭이기에 페테르부르크에는 모스크바역이 있고 모스크바에는 반대로 페테르부르크의 옛 지명인 레닌그라드역이 있다. 이 모스크바역을 중심으로 네프스키를 따라 시원하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네바강과 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 네바강변에 에르미타주(Hermitage)가 있다.

영국의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각광받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원래 러시아의 황제들이 겨울을 지내던 '겨울궁전'이었으며, 그 명성에 걸맞게 입구에서부터 화려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네바강을 경계로 도시건설의 시발점인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와 마주하고 있는 이곳은 1764년 예카테리나 여제가 해외 사절로부터 받은 진귀한 선물들과 부채로 받은 자신의 소장품을 모아 개인전시실로 쓰던 것이 19세기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기 시작해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박물관이 되었다.

때때로 겨울궁전은 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또 다른 궁전인 여름궁전과 비교되곤 한다. 스웨덴과 러시아를 상징하는 〈삼손의 분수〉로 유명한 여름궁전은 핀란드만을 앞두고 펼쳐진 1천 헥타르라는 방대한 영지의 아름다운 분수정원으로 유명한가 하면,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인간의 역사와 기록, 예술품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인본중심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더 거창히 말하자면, 여름궁전은 신에 의해 창조된 자연이 주가 되고 인간의 기술이 부가적 의미를 가지는 반면, 겨울궁전인 에르미타주는 진정 인간의 손으로 빚어진, 인간 고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기에 에르미타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범인류적인 향취를 더없이 강하게 발산하는 곳이라 하겠다.

개인의 비밀스런 전시실이었다는 역사적 유래로 인해 프랑스어로 은둔자를 의미하는 에르미타주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이곳은 총 5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황실의 건물인 겨울궁전이 중앙 건물이고 여기에 1764년부터 수세기에 걸쳐 더해진 소 에르미타주와 구 에르미타주, 에르미타주 극장, 그리고 니콜라이 황제가 건립한 신 에르미타주가 한곳에 어우러져 오늘날의 위용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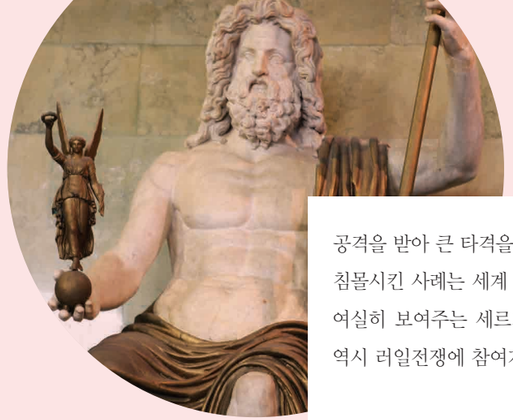
이곳에는 회화를 비롯하여 300만 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실 수만 하여도 1,020여 개에 다다른다. 여기에 176개의 조각상과 세계 각국의 고대 유물들이 더해져 전체 박물관은 지구를 축소해 놓은 그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회화를 즐기는 이들 사이에서는 에르미타주가 생애 한번은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관문처럼 통하는데, 이유인 즉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서부터 렘브란트, 모네, 마네, 루벤스, 고흐, 고갱, 마티스, 그리고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세계 미술계 거장들의 대표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기 때문이라 한다. 실제로 작품 한 점당 1분씩만 관람하여도 이곳에서는 수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하니 그 상상만으로도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

해군 박물관 내부 전경

비운의 역사, 치유의 백야

그러나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유럽을 향한 창도 피로 얼룩진 역사를 지울 수는 없었다. 크고 작은 전쟁과 수난을 끊임없이 겪은 러시아의 비운의 역사에서 도시 페테르부르크가 그 절반의 몫을 짊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폴란드 군을 몰아내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대국 러시아에도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암울한 역사는 후세에게 그리 달갑지 않았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듯 전쟁에서의 패배와 혁명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제정 러시아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안정감을 상실해갔다. 이런 즈음 일본과 만주와 조선에서의 세력권을 두고 각축을 벌였던 러시아는 끝내 전쟁을 벌이고 만다.

1904년 1월 러시아에 일본은 선전포고를 하면서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였던 중국의 여순항을 기습한다. 이를 계기로 장장 1년에 걸친 러일전쟁이 시작된다.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였던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러일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극동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러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발트 함대는 1703년 표트르 대제가 대 북방전쟁을 위해 창설한 이후 크림전쟁 등 수많은 전쟁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워왔다. 그러나 영국의 방해와 항로의 험난함으로 정작 극동에 다다랐을 때에는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연패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 특히 인천 앞바다에 수장되었던 바랴그(Varyag) 함은 우리와 역사의 일부분을 함께 한다. 제물포 전투에서 일본 군함에



에르미타주에 전시 중인 제우스 상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은 바랴그 함의 선원들이 배가 빼앗기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스스로 침몰시킨 사례는 세계 전사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러시아 수군의 반란과 혁명의 역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감독의 영화 〈전함 포템킨〉의 주역 포템킨 함도 역시 러일전쟁에 참여가 계획되었으나 실전에 배치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오늘날 피로 얼룩진 전쟁의 역사는 과거의 한 장으로 머무를 뿐, 어느 누구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수많은 수병을 싣고 희망봉을 돌아 저 멀리 극동을 향했던 발트 함대의 본거지인 크론슈타트에는 아름다운 바다 풍광과 함께 곳곳에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었다. 페테르부르크를 지키는 관문이었던 이곳은 핀란드 만에 위치한 조그만 섬으로서 오늘날 바다를 가르는 도로가 놓여 육지가 되어 버렸다. 그러기에 바다를 지나 크론슈타트로 향하는 길은 마치 물 위에 떠올라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만든다. 외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찾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상쾌하게 하였고 내해의 온화한 대기는 마치 전쟁의 아픔을 치료라도 하듯 포근히 감싸주었다. 섬 한쪽 끝에 자리한 해군 성당에는 전몰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담겨있을 소중한 사연에 잠시 숙연해진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저녁을 맞이하였다. 우리에게 저녁이라면 여섯 일곱 시 경을 가리키겠지만 백야의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낮의 연장일 뿐, 아직 이른 시간으로 통한다. 거의 열두 시가 넘어야 해가 지니 말이다. 겨울에는 짧은 낮으로 네다섯 시간 밖에 빛을 볼 수 없지만 반대로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서너 시간의 어둠이 고작이다. 거기다 밤 한두 시 경부터 도시 전체의 다리가 순차적으로 열리는 장관이 펼쳐지다보니 잠은 잠시 미뤄둬야 할 것 같다.

조명을 밝게 비춰진 다리가 하늘을 향해 열린 네바강변에 문득 이름 모를 가수가 부르는 한국계 록 가수 빅토르 최의 〈태양이란 이름의 별〉이란 노래가 울려 퍼진다. 이로써 백야의 대미는 어느 정도 장식을 마친 듯하다. 한여름 밤의 꿈과도 같았던 페테르부르크에서의 일주야도 이제 곧 다시 찾아들 아침이면 현실과 마주하리니, 잠든 도시를 뒤로 하고 긴 여운을 담은 채 모스크바 역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박정곤
– 고리키 문학대학교 한러문화연구원 원장
– 고리키 문학대학교 초빙 연구교수
– 러시아 지역 전문가/극지방 문화 연구자
– EBS 〈세계 테마기행〉 러시아 큐레이터

제물포 해전을 묘사한 그림. 당시의 치열했던 상황을 잘 느낄 수 있다

01

이현의 「만쟈레 칸타레 아모레」 행복을 선사하다

글 김은주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 사진 달서문화재단 제공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이다" – 브리야 샤바랭

지난 6월 3일 저녁 7시 30분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세 번째 스마일 토크 콘서트인 「만쟈레 칸타레 아모레」 무대가 관심 속에 막이 올랐다. 요리와 노래, 토크가 함께 어우러지는 색다른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에 호기심 가득한 관객들의 발길이 6시부터 이어졌다.

테너 이현 교수(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장)가 객석에서 노래 '하망연'을 부르며 내려와 무대에 올랐다. 그런데, 조리대에서 요리를 하다 관객에게 말을 건냈다. **"「미식예찬」의 저자 브리야 샤바랭은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저 이현이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무대 위에 세팅 되어 있는 조리대며, 테이블, 그 너머 피아노와 드럼, 그리고 요리사 복장의 이현 교수. 관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때부터 1시간 30분 동안 와룡홀에서는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와 함께 멋진 노래와 연주, 그리고 즐거운 토크쇼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다.

"육체는 영혼이라는 짐을 지고 다니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육체를 먹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바닥에다가 영혼을 팽개치고 말거래요."라며 이 교수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구절을 얘기할 때는 재미있는 인문학 콘서트를 연상하게까지 했다. 요리와 연주와 더불어 철학적 얘기를 전하자 가슴에 명언이 그대로 쏙 들어왔다.

'부르스케타, 스프, 파스타, 스테이크, 디저트' 요리에 맞춰 '하망연, 살짜기 옵서예, 볼라레,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마리아, 낭만에 대하여, 키사스, 그라나다, 왕벌의 비행,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 등 노래와 연주가 함께 어우러지는 토크 콘서트가 어떻게 이뤄질지 기획을 하고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테너 이현과 소프라노 신델라, 피아니스트 최훈락, 퍼커셔니스트 신재승 등 내로라하는 연주자들과 쉐프 케빈 김이 한자리에 모여 만들어낸 연주와 퍼포먼스는 무대와 객석이 함께 소통하는 드라마 같은 콘서트를 만들었다. 다양한 경험이 넘치는 연주자들의 세련된 공연으로 무대도 객석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

처음 시도한 색다른 콘서트를 마친 소감에 대해 이 교수는 **"평소 노래할 때 마음과 요리할 때 마음과 사랑할 때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란 걸 관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무대로 만들고 싶었다."**며, **"연주자는 물론 모든 스탭들이 한마음으로 도와줘서 가능한 무대였다."** 며 감사의 말도 함께 전했다.

연주를 마쳐도 관객들은 자리를 떠나기 주저했다. 「만쟈레 칸타레 아모레」 공연에 모두 푹 빠져들고 만것. 이 교수가 공연 초입에서 예고한 듯이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행복을 한아름 안고 즐거워했다. 역시 연주는 공감이고 소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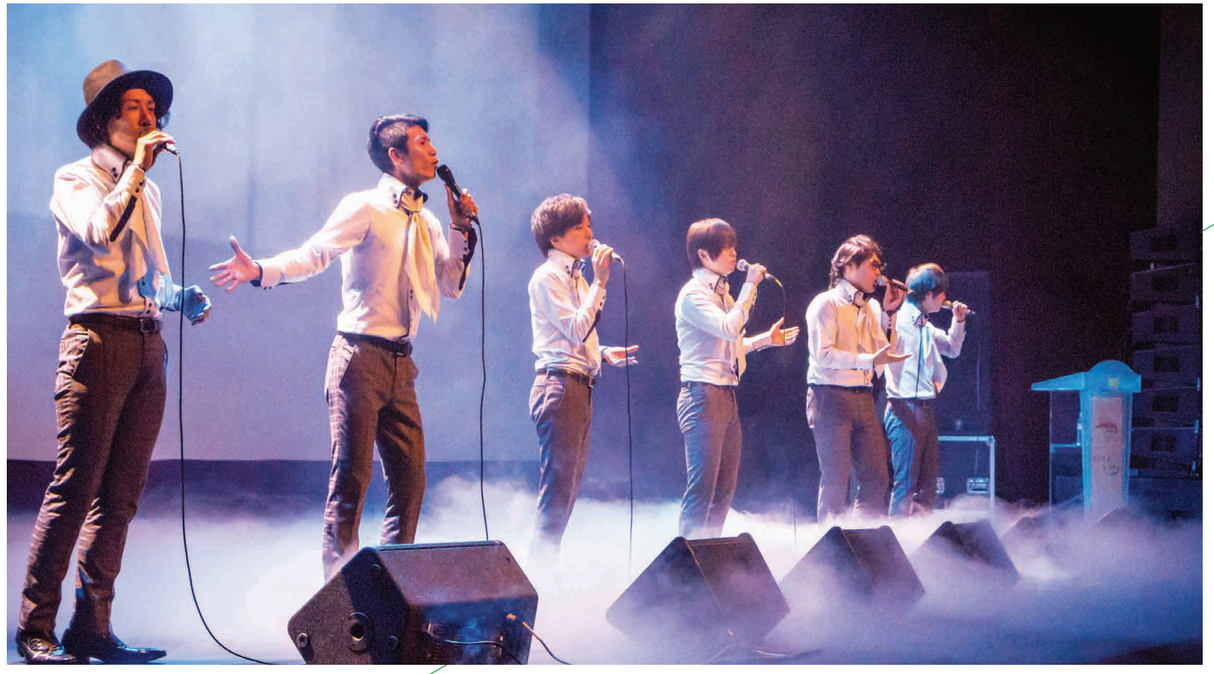
Performance | 공연

02

아카펠라의 성지 고베에서 날아온 남성 6인조 **'퍼머넌트 피쉬'**

글 김은주 | 사진 오아시스 커뮤니케이션, 달서문화재단 제공

완벽한 하모니를 자랑하는 일본의 6인조 남성 아카펠라 그룹인 '퍼머넌트 피쉬'가 지난 4월 24일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달서문화재단 출범 1주년 기념축하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내 어릴 적 꿈은 파란 풍선을 타고~~~

또렷한 한국어 발음에 완벽한 하모니의 퍼머넌트 피쉬 노래가 시작되자 청룡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환호성과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팝송은 물론 록발라드, 한국가요까지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퍼머넌트 피쉬의 공연을 접한 관객들은 이들이 들려주는 노래에 단번에 매료됐다. 또 이들이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일 때마다 탄성을 지르며 열광했다.

퍼머넌트 피쉬의 멤버들이 무대에서 선보이는 목소리와 몸짓에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토시(리드보컬)가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하며 멤버를 소개했다.

"달서문화재단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무대에 저희 팀이 연주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퍼머넌트 피쉬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펫(타카하시)과 전자기타(슌수케), 베이스(코우헤이), 드럼(카즈, 팀리더), 보컬(키쿠리) 등 멤버를 하나하나 소개하자 각각의 소리로 화음을 맞추며 노래를 이어갔다. 장르에 맞춰 다양하게 변하는 목소리만으로도 황홀한데, 노래와 각자의 특기를 담은 목소리 반주로 이어지는 그들의 음악성과 퍼포먼스는 에너지로 가득찼다.

‘사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관객들은 **“반주 없이 순수한 목소리만으로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음악을 접하면서 마치 감전되는 듯한 전율을 느낀다.”**며 즐거워했다.

한국노래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한다는 그들은 3장의 한국어 앨범까지 발표했다. 이유를 물었다. 토시(리드보컬)가 기다렸다는 듯이 상기된 표정으로 대답을 했다.
“여러 나라 음악을 아카펠라로 만들어 공부하고 연주하던 중, 어느 순간 한국가요의 멜로디가 귀에 쏙 들어왔어요. 이거다 싶었어요. 처음엔 일본어로 한국노래를 번역해 불렀는데, 내친김에 한국가요를 아카펠라로 편곡해 한국어로 부르고 싶었어요. 그러자 한국에서 공연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우리의 이런 뜻을 알게 된 일본의 소속사 판타지아(대표 모토바야시)와 한국의 소속사 오아시스 커뮤니케이션(대표 김형철)이 손을 잡고 공연을 주선하고 음반까지 내도록 한 것이죠.”

사랑이란 그 말을 못해도~~~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아카펠라로 부를 때 그들은 관객과 하나가 된다.
“한국 노래의 멜로디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 한국말 가사를 배우면서 한국노래에 대한 감성도 느끼고 있다.”며 **“각 멤버들이 화음을 맞춰갈 때 각자의 영혼도 함께 맞춰지는 것을 느끼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화음이 다섯 명의 머리 위에 큰 원으로 그려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팀리더이자 맏형인 카즈(보이스 퍼커션)가 들려줬다.

일본의 유명 보컬 그룹인 베이비 부 출신인 카즈에게 퍼머넌트 피쉬의 결성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다.
“아카펠라의 성지라고 불리는 고베에서 2005년 ‘퍼머넌트 피쉬’가 결성됐어요. 고베 대지진 이후 음악인으로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자 ‘영원히 헤엄치는 물고기’라는 뜻의 아카펠라그룹인 퍼머넌트 피쉬를 결성했어요. 가족도 친구도 악기도 모두 잃어버린 후 저 자신도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진정한 ‘프로’로서 모두에게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노래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함께 멤버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기에 좌절하지 않고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호응해주는 관객들이 늘기 시작했죠. 노래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다시 가져다준 것입니다.”

We got the Music~~~

멤버들에게 그들이 음악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하모니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하물며 리듬을 넣어 화음을 즐기기 위해서는 각자가 엄청난 역량을 발휘해야 해요. 관객들에게 늘 새로운 감동을 주기 위해 연습에 충실하려 합니다. 관객과 같은 자리에서 말이 필요 없는 절대적인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공감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우리들은 거짓이 아닌 살아 있는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전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헤엄치는 물고기(퍼머넌트 피쉬)라는 뜻의 그룹 이름처럼 일본과 한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전에 아카펠라로 아시아 청년들을 음악으로 뭉치게 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함께 나누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류가 아닐까요.”

아시아 투어를 위해 한국, 대만과 싱가포르 공연을 준비 중인 이들은 자신의 음악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연 관계자는 물론 다른 가수와 관객들을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예의바른 청년들로 알려져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그룹이 한국에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공식사이트 www.oasiscomm.co.kr / 소속사 오아시스 커뮤니케이션
www.fantasia-kobe.jp/pf

03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의 저자 **권순휘**의 매력 콘서트

글 김은주 | 사진 이창우(사진작가), 달서문화재단 제공

"권순휘 피아니스트의 공연은 매번 즐겁다. 이웃집 훈남 오빠가 조곤조곤 일러주듯 쉽고 흥미진진한 설명에 주옥 같은 연주까지 더해지면, '클래식이 이렇게 쉽고 재밌는 거였구나'하고 클래식의 마력에 푹 빠져들고 만다."
– 뮤지컬 작가 정준

지난 2월 4일 저녁 7시 30분 와룡홀에서 열린 첫 번째 스마일 토크 콘서트인 '권순휘의 미술관 콘서트'는 미술 분야와 음악 분야의 예술적 공통분모와 예술 융합을 주제로 한 렉처 콘서트로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미술관 콘서트에 대한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은 만석에, 입석을 넘어 대기자까지 생겨날 정도로 인기 만점이었다.

이야기꾼 권순휘

인류가 사랑한 음악가와 화가들의 예술적 연결고리를 풀어 권순휘이 직접 엮어놓은 책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만든 '미술관 콘서트'에서 피아니스트인 권순휘은 이야기꾼을 자처한다. 연주 전 들려준 그의 말에서 공연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예술가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작곡가는 음악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치열하게 작품에 담아내고 있지요. 작곡가와 화가들의 삶 뒤편에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가슴으로 느끼는 예술 감상에 관객들을 모시고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클림트 작품,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베토벤의 '월광소나타 3악장'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렘브란트, 모딜리아니, 고흐, 리히텐슈타인 등 유명 화가들의 20여 작품 설명과 더불어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중 프렐류드, 쇼팽의 왈츠 7번, 가르델의 간발의 차이로, 베토벤의 비창소나타 1악장, 헨델의 파사칼리아, 브람스의 헝가리무곡 5번, 1번 등 14곡의 음악을 바이올리스트 윤지영, 첼리스트 강희윤과 함께 멋지게 엮어갔다.

Soonhwonism으로 물드는 공연장

여러 매체에 알려진 것처럼 권순휘은 권순욱 뮤직비디오 감독의 형이며, 세계적인 가수 권보아의 오빠다. 세 남매 모두 음악인이 된 비결을 묻자, 그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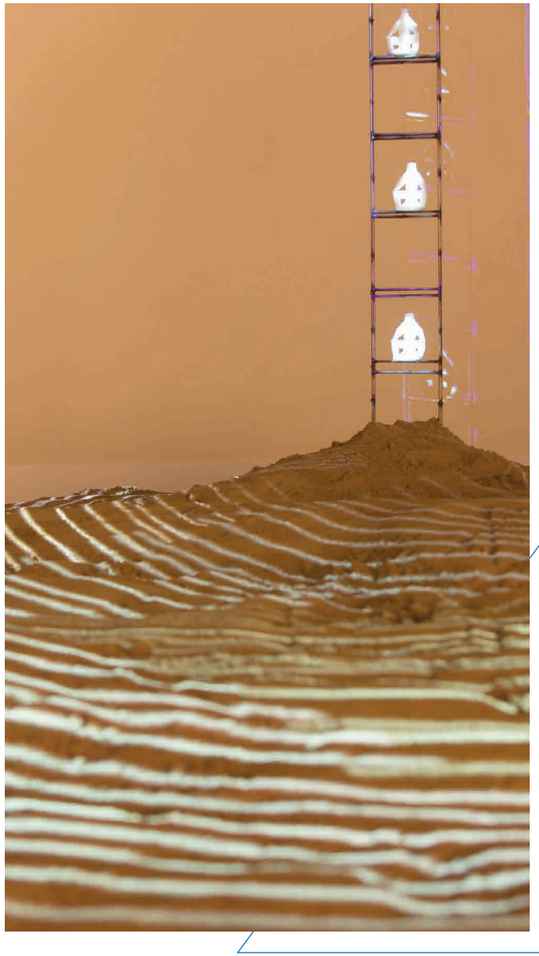
"저희들이 음악의 길을 가는데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저희들이 무얼 하고 싶은지에 귀 기울여주셨어요. 부모님의 교육 방향이 확고했던 것이죠. 열심히 하는 만큼 충분한 칭찬과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노력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콘서트의 주인공 권순휘과의 만남은 까다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깨버리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소탈함과 인간미 넘치는 매력남이었다. 한 번의 인터뷰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를 보며 역시 Soonhwonism(순훠니즘)으로 물들이는 인물임을 확인했다. 몸에 밴 매너와 진정성이 담긴 '권순휘의 미술관 콘서트'는 관객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멋진 연주로 기억되기에 충분했다.

01

[은유;시간]의 주인공
류재하, 임창민의 미디어아트 세계

글 이원곤 | 사진 웃는얼굴아트센터 제공



"기술은 기계로 표현되고, 예술은 인간의 감성적인 면을 대변한다. 예술은 정신적이거나 정감 어린 세계에서의 자유로운 상상의 산물임에 비해, 기계는 물리적, 수리적인 자연의 논리적 필연이 낳은 결과이다. 예술적인 것은 정신적이면서 자유롭지만 기계적인 것은 물질적이면서 필연적이어서,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예술적인 것은 기계적일 수 없으며, 기계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비예술적이라는 증거가 된다. 예술은 기계와 무관하며 오히려 기계에 반발한다."(〈영상기계와 예술〉(1997) '후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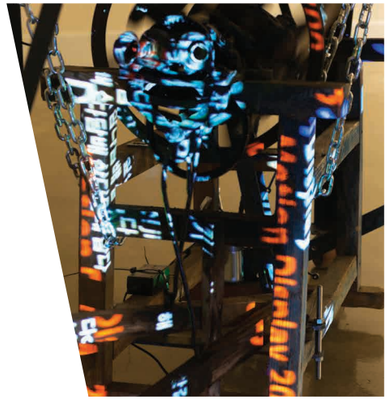
지난 3월 전시돼 화제를 모았던 〈류재하, 임창민의 미디어아트 은유;시간〉전에서는 두 작가에게 각자의 관점에서 '시간'이라는 주제에 은유적으로 접근하라는 미션을 부여했다.

하지만 두 작가의 작업은 모두 다층적 문맥과 초(超)언어적인 세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주제는 관객들이 전시에 접근할 때 필요한 적절한 심리적 대응방식을 암시하는 포괄적인 은유가 되어버렸다고 생각된다.

류재하 작가의 오브제를 통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

류재하 작가의 작품을 보는 관객의 시선은 공간에서 영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기계시대의 향수로 옮겨간다. 그의 작품에서 시간은, 시적으로 연출된 공간과 삐걱거리는 '새끼 꼬는 기계'의 동작이 대비되면서 환기시키는 기억으로 표현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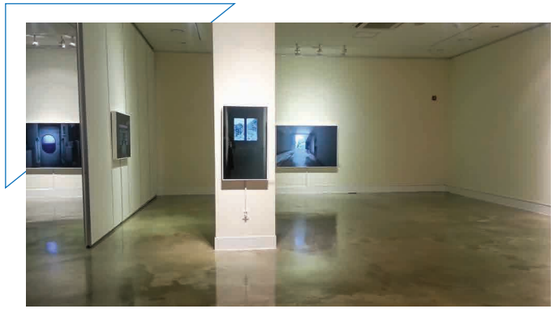
[은유;시간] 전시에서 류 작가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LED 디스플레이 소재 '미디어 조각(media-sculpture)' 작품이나, 덕수궁, 광화문 등 역사적 건축물에 3D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연출과는 다른 개념의 작품을 선보였다.



류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특별한 사고나 인식이 없는 가운데 작품에 대해서 굳이 어떠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작가노트)고 스스로 밝혔다. 미디어를 가지고 노는 가운데, 미디어든 오브제든 거기에 기존의 관념을 투사하지 않고, 순전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며, 오직 자신의 감성을 투사하여 사물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장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에 앉아 생각에 잠긴 인체상, 빔프로젝트로 모래 위의 비추어진 등고선과 새끼를 꼬는 철제 구조물에 비추어진 문자 등 갖가지 기호와 이미지들은 서로간의 간격을 유지한 채, 전시장에 들어오는 관객의 해석을 기다릴 뿐이다.

류 작가는 **"공장지대 옆에 아트센터가 위치한 공간의 특징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했다."**고 작품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면에서 그의 오브제들은 '느슨한 매핑'으로 작품의 의미와 문맥을 개방한 채 관객에게 인식의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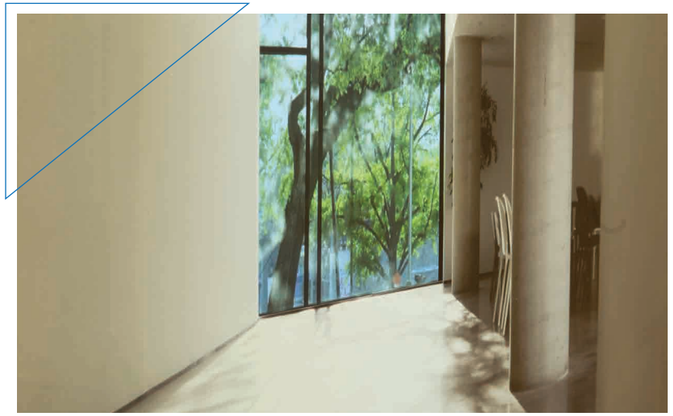


임창민 작가의 정지된 프레임 속 흘러가는 추억

기본적으로 사진을 출발점으로 하는 임창민의 작업에서, 시간은 실내풍경에 삽입된 모니터 = 창문에서, 즉 주로 외적(外的)으로 연출된다.

여기서 창문의 프레임은 실내의 시간이 동결(凍結)된 실내공간과 반대로 시간이 살아있는 실외공간의 경계선이 되고, 이 대비는 관객의 뇌(腦)에 미묘한 인식의 놀이를 제공한다. '시간이 외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것은 공간이 내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던 칸트의 통찰과 대비시켜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일 것이다.

정지화상(=사진)과 동영상을 결합하여 정적인 실내공간을 연출하는 작가로 알려진 임창민 작가는 **"사진 속 공간은 미술관 로비, 호텔 스위트룸, 구내식당, 오래된 대학의 복도 등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시선이 머물렀던 장소들이고, 여기에 창문을 통해 주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끌어들인다."며, "풍경은 모니터를 정교하게 삽입시켜 보여주는 동영상이지만 마치 벽에 걸린 그림이거나 시간이 정지된 듯한 표정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 장면은 '회화는 자연을 향해 열려진 창문'이라 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기의 화가 L. B. 알베르티의 이해와 지중해 양식의 건축물의 창문, 중국식 정원에서 구사했던 차경(借景, appropriative landscape), 문인(文人)의 방에 걸린 도원경(桃源境)의 그림 같은 문맥과 일면 통하는 듯하다. 실내=방은 자아(自我)의 성(城)과 같은 곳이다. 실내는 바로 자신이 담겨있고 존재하는 (자신의) 신체의 은유이고, 창문은 눈의 은유이다.

그런데 임창민의 작품에선 '창밖의 풍경'이 작품에서 오묘한 동력을 얻게 된다. 사진 속 창밖의 동영상 풍경과 고정된 공간의 화면, 둘 사이는 매우 정교하게 봉합되어 있으며, 동영상은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가장(假裝)하거나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계 무너뜨리기에 의해 작품 속 풍경은 현실의 것도 기억도 아닌, 둘 모두의 통합상(統合像)으로 변형된다.
영상과 오브제가 혼합된 설치(류재하)와 동영상과 정지화상이 결합된 시각장치(임창민)라는 대비와 대조적인 두 작가의 성향이 전시를 보는 즐거움을 한층 더해준다.

'미디어아트'는 미디어가 예술의 정체적인 표현, 전달, 향수의 전 과정을 결정짓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기반이 내용은 물론 예술 그 자체의 성격도 바꾸게 된다. 예를 들어 서양미술에서 캔버스가 발명된 후 그림이 건축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림의 작가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처럼, 디지털 영상이 보편화되면서 이미지는 미디어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복제, 수정, 변조, 인용, 차용 그리고 합성이 무한하게 반복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미디어아트를 과학관이나 산업전시장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한 일이다. 미디어아트는 이제 현대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 그야말로 예술의 생활화, 대중화라는 미션을 명실공히 실천하고 있다.

이원곤
– 단국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同대학원 회화학과 석사
– 일본 쓰쿠바대학 대학원 예술학연구과 석사
– 백남준아트센터 건립추진위원회
– 충돌과 흐름(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04) 전시 등 다수 전시회 참여
– 미디어아트/이벤트 전시부문(국제) 행사기획 및 집행 컨설팅

조각가 **이용재**를 만나다

글 남승렬(대구신문 문화부기자)
사진 웃는얼굴아트센터 제공

"운명적 끌림은 삶이 되었고 치열한 현실은 예술이 되었다"

"남자가 태어나 미술을 한다면 당연히 조각 정도는 해야지." 미술대를 가고 싶었던 청년에게 선배가 들려준 말이었다.

한국 현대 미술계가 주목하는 조각가 이용재(50) 작가의 조각 입문기에 대한 이야기다. 아마 운명의 끌림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 운명의 끌림, 그건 그 자체로 그의 삶이 됐다.

누하(淚河) 시리즈 - 흐르는 눈물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출범 1주년 기념 미술의 숲 특별전에 참여한 그를 지난 4월 25일 웃는얼굴아트센터 두류갤러리에서 만났다. 두류갤러리 실내에는 그의 작품 30여 점이, 야외전시장에는 1점이 전시 중이었다. 이번 특별전에서 그의 대표작품인 '누하(淚河)' 앞에서 대뜸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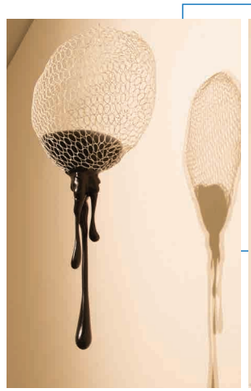
"실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성들이 머리를 다듬는 머리망을 닮았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술적 지식의 일천함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이 작가는 호탕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대답했다.

"작품 '누하'는 '몹시 흐르는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보통 '한없이 울었다', '한없이 흐느꼈다'는 등의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그때 흐르는 눈물을 일컫는 표현인데, 제 작품에선 이 눈물이 개인의 눈물일 수도 있고, 사회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했지만 저 역시도 정의를 잘 내리지 못하는데...(웃음). 결국 감정 없는 단단한 사회구조와 이런 사회의 일상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허무한 감정을 흘러내리는 눈물방울 모습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선지 위의 누하. 킬리만자로의 표범 앞 소절을 표현한다

방대한 작업량, 지금의 이용재를 만들다

이 작가는 당초 대학에서 디자인과 공예를 전공했지만 조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군대를 다녀온 뒤 졸업 후, 1987년 다시 대학에 들어갔다. 동국대 예술대학, 전공은 당연히 조각이었다.



그 곳에서 그는 운명의 은사인 이점원 교수(경주 동국대 미술학과)를 만나게 된다. 이 교수는 1988년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후학 양성과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조각가다. 현재까지 개인 · 단체전을 비롯해 총 400여 회의 전시전을 열었으며, '오늘의 미술가상', '삼일문화대상 특별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작가에게 이 교수는 어떤 은사님이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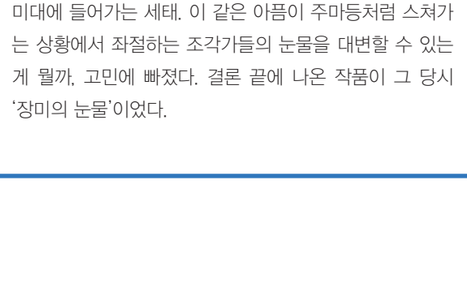
"한마디로 조각가 이용재를 키운 분이십니다. 교수님께 조각을 배웠고, 제가 강의 활동을 하는데도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이점원 교수님이십니다."

느낌이 왔다. 조각가 이용재의 삶에 뭔가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준 인물 같아 교수님으로부터 전수 받은 조각가 이용재의 예술철학이 궁금하다고 하자 이 작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예술철학….(웃음) 요즘 능력 있고 소질이 뛰어난 예술하는 젊은 친구들은 미술은 뭐다, 조각은 뭐다, 이런 말을 아주 잘하던데 철학적으로 제 예술을 정의 내리기엔 아직 이르죠. 더 많은 작업을 한 뒤에야 조심스레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같군요."

"그래도 은사로부터 뭔가 배운 게 있지 않을까요?"라며 재차 채근성 질문을 했다.

그제야 이 작가는 **"은사이신 이 교수께서 '너는 조각을 하려면 공무원처럼 해라.'라고 하셨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직업의식을 갖고 작업을 꾸준히 하라는 당부였죠. '작품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야만 네가 훗날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오전 9시가 넘으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에 따른 방대한 작업량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군요."**(하하하)



잊지 못하는 첫 작품 'tears'

이 작가의 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첫 개인전은 좀 늦은 감이 있다. 1997년 경기도 안성에 작업실을 얻은 뒤 작품 활동을 이어가다 2008년 'tears(눈물)'라는 주제로 서울 관훈갤러리에서 개최한 전시회가 그의 첫 개인전이었다.

그때도 '눈물'이었다. 도대체 왜?

"인생을 살아온 게 아름답지 못해서요. 개인전 역시 더 빨리 열 수 있었는데 일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죠. 조각하는 친구들이 40대를 전후해 거의 그만두게 되더군요. 성공과 실패, 그 여부에 따라 결혼하게 되고 세파에 밀리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조각하는 선후배들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제자와 후배들이 조각을 놓아버리는 상황. 치열함도 없이 미대에 들어가는 세태. 이 같은 아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상황에서 좌절하는 조각가들의 눈물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에 빠졌다. 결론 끝에 나온 작품이 그 당시 '장미의 눈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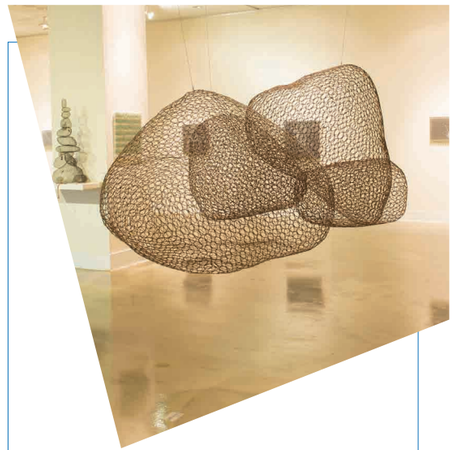
현대 미술계가 주목하는 작가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자. 그런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첫 개인전 대표작품으로 'tears'라는 주제로 장미꽃을 조각했습니다. 흙으로 만들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일일이 소재를 다듬어가며 갈아내면서 작업한 작품으로 꼬박 8개월이 걸렸지요. 지금 같아선 어떻게 완성했나 싶네요. 결국 '눈물, tears'는 작업하며 내가 흘린 땀과 눈물, 떠나가는 친구들을 잡지 못한 자괴감 등을 대변하는 작품일 겁니다."

'tears' 이후 이 작가는 2011년부터는 영국의 시인 존 던의 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영감을 얻어 '표류 – 대화'라는 주제 작업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당분간 '누하' 시리즈에 집중할 것이라고 자신의 작업내용을 밝혔다.

"작가의 양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저 역시도 모르겠지만, 그 작품 역시 대구에서 전시하고 싶습니다. 사실 처가가 대구에 있습니다."(웃음)

조각가 이용재, 그는 오늘도 자신의 삶을 조각한다.



'표류–떠도는 대화'

‘격정’을 담은 그림과 ‘평온’을 추구한 그림

리용 보자르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글 · 사진 김영동

Aelbrecht Bouts(after 1451 – 1549), ‘예수’ 프랑스 리용 보자르 미술관 소장
같은 작가의 비슷한 작품이 독일 스튜트가르트 시립미술관에도 한 점 더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있고 난 뒤 한 아침신문에서 눈에 띄는 제목 한 줄을 발견했는데 당시 선거결과에 그다지 관심이 없던 내게도 꽤나 인상적인 표현을 담고 있었다. 참패한 야당 대표의 책임을 놓고 그 신문은 “처절함도 절박함도 없는” 이라는 의미심장한 글귀를 기사의 제목으로 썼는데 비판적인 독자들이라면 아마 공감하는 바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기회가 와도 좀처럼 유권자의 표심을 잡지 못하는 데다 지지자들의 마음조차 사로잡을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야당 대표의 자세를 일러 그런 함축적인 표현을 썼으리라. 그러나 나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 말의 쓰임새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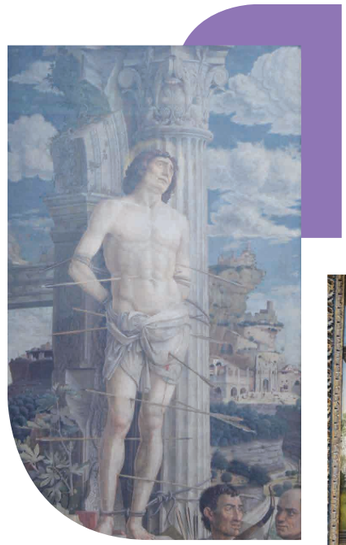
회화에 나타난 처절한 고난

사람이 처절해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질 때가 어떤 경우일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사람의 마음가짐을 예술작품이 어떻게 표현하였는지에 관해서였다. 갑자기 닥친 고난이나 곤경을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깊은 상처를 입고 절망할 때 바로 그런 심경의 사람들을 위로했거나 혹은 그런 이들에게서 나왔을 법한 그림들이 있다.

프랑스 ‘리용 보자르 미술관’에 있는 16세기 한 플랑드르 화가의 그림 중에는 바로 그런 처지의 사람이 품었을 심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다. 가혹하리만치 처절한 모습의 그 그림은 알브레히트 보츠[1]의 ‘예수’를 그린 것인데 보면 한없이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물론 이 그림이 보츠만의 독창적인 양식은 아니다. 먼저 디에릭 보츠[2]가 그린 그림이 루브르와 런던 내셔널에도 있다. 그래도 비슷한 유형의 많은 그림들 가운데서도 이 그림은 너무나 처절하면서도 절실하다. 가시관에 찔린 이마 위로 피가 흐르는 모습은 그러하다 해도 눈물과 충혈로 핏빛으로 붉어진 눈망울이 차마 보기에도 마음이 아리다. 특히 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에 난 깊게 패인 상처가 보이는 양손을 들어 축복을 하는 그 모습에 있다. 아마도 이 작은 그림에서 그렇게도 절실하게 자비를 구하는 작가의 마음이 감상자들에게도 충분히 감정이입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같은 주제, 다른 느낌

예술작품 속에 드러나는 정서는 시대에 따라 또는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는 동시대 특유의 정서적 반응이 있는 것 같다. 북유럽 르네상스 작가들이 그린 그리스도 상이나 ‘책형도’ 같은 주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의 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주제의 바로크 시대 작품들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현보다는 조화롭거나 역동적인 분위기를 추구함으로써 ‘책형도’의 비극성마저도 영웅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만테냐, 성 세바스찬
루브르 소장

페루지노(Perugin), St. Sebastien, 1490–1500

1) Albert Bouts(after 1451 or 1452 – 1549)
2) 디에릭 보츠 Dieric Bouts the elder(c.1415–1475)

들라크루아 Delacroix, July 28
Liberty Leading the People, Salon of 1831

제리코 Géricault,
The Raft of the Medusa,
Salon de 1819

보인다. 잔혹할 정도의 많은 화살을 맞은 주인공이 당했을 고통을 작가의 정서는 회피하지 않고 감정이입 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루브르에 있으며 동일한 주제의 수많은 작품이 있다.

격정을 담아내는 들라크루아

기본적으로 그림에서 격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현대에 와서 두드러진 것이다. 흔히 낭만주의가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며 격정을 분출시키는 경향의 예술사조라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낭만주의 안에서도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흔히 말하는 격렬한 열정의 표현을 추구한 그림들은 소수다. 오히려 세속을 벗어나 멀리 떨어진 자연을 조용히 탐구한 풍경화들이 많다. 앞의 예를 들자면 들라크루아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루브르에 있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1830)이라든가 그보다 앞선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1819)처럼 역사상 일어난 어떤 극적인 순간이나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력으로 묘사한 작품들이 있다. 구성한 내용도 그러하지만 표현상의 기법이나 채색 역시 비극성의 강조라든가 열정의 고조를 위해 특별히 고려되었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요소들도 충동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 중인 위의 두 그림은 우선 물리적인 크기부터도 압도적이다. 취급하는 이야기의 내용도 극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표현 자체가 역동적인 힘으로 가득 차있다. 그러나 들라크루아의 작품들이 주는 시각적인 인상은 그의 작은 그림에서도 표현기법의 특징으로 인해서 당시 신고전주의와는 대척점에 서있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꼽힌다. 한때 그가 즐겨 다룬 역사적 주제들 외의 작은 작품에서도 예의 시각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말'이란 주제와 '마상 격투' 같은 장면을 봐도 그의 회화가 얼마나 보는 이의 감정을 흔드는지 색채나 붓놀림이나 소재의 선택 등 모든 면에서 열정에 찬 개성을 발휘하고 있다.

들라크루아, 마상 격투 장면, 루브르 소장

Delacroix, Horses Coming Out of the Sea, 1860, Oil on canvas, 51x61cm

때로는 동일한 주제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작가에 따라 서로 정 반대의 정서를 보일 경우도 있다. '성 세바스찬의 순교' 주제를 르네상스 시대 페루지노와 만테냐 두 작가의 그림으로 보면 너무나 다른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그들 각각의 관심과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었으리라. 자연히 그들을 둘러싼 후원자와 관객들의 정서도 둘로 나뉘어졌겠지만 심미안을 가진 예술의 관객이라면 양쪽을 다 같이 수용할 만큼의 넓은 폭을 가졌을 것이다. 시대의 차이든 개성의 차이든 그림의 최종 목적은 다 같은 염원이었을 것이고 결국 그 효과도 동일하게 발휘되었을 것이다.

성 세바스찬의 순교를 주제로 그린 페루지노와 만테냐의 그림. 페루지노는 라파엘로의 스승이었다. 그는 성인의 고상하고 이상적인 신체의 균형과 화면의 조화로운 구성을 위해 정성을 다했다. 그 결과 고대 그리스 고전의 절제되고 맑고 고요한 정서가 감돈다. 세바스찬은 로마시대 군인이었으나 기독교를 옹호하다 사형당한 용감한 청년이었다. 화살 세례로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몸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표시를 했다.(실제로 그런 전설이 있다.) 반면에 만테냐는 르네상스 고전주의의 또 다른 기풍을 반영한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고증을 원했고 실제적인 자료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 결과 순교자의 표정에는 고통에 찬 감정이 드러나

들라크루아(E. Delacroix), 습작, 루브르 소장

코로(1796–1875) Camille Corot,
Souvenir de Mortefontaine, Salon de 1864, 루브르 소장

감각을 자극하는 이런 활기는 다른 어떤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특히 대가들의 특징이다. 습작처럼 제작된 들라크루아의 또 다른 두 점 역시 그의 빛나는 색채 감각과 살아움직이듯 다이내믹한 붓놀림이 경이로울 정도다. 평소 이국적인 소재를 좋아했던 그는 오리엔탈 문명의 복식과 관습을 즐겨 묘사했는데 주로 상상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런 소재로 인해 보다 강렬한 색채 감각을 더 마음껏 구사할 수 있었다. 한때 역사적인 주제에서 격정적인 예술세계를 펼쳤던 그의 그림이 감각에 주는 흥분은 결국 미적 기쁨이자 삶의 희열로 전이된다고 말하고 싶다.

평온을 추구한 코로

들라크루아(1798–1863)가 낭만주의의 정신세계와 제작 기법으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작가라면 그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작품 속에서 평온을 추구한 사실주의 작가 코로(1796–1875)의 작품을 보면 현저히 다른 정서적인 차이를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열정을 깨닫게 된다.

들라크루아는 소용돌이치는 '바다의 폭풍우'나 '치닫는 말'처럼 격정적인 감정과 공감을 자아낼 역동적인 장면을 많이 선택했지만 반면 카미유 코로는 있는 그대로의 평범한 자연을 좋아했다. 들라크루아 그림에 나타나는 이국적인 정서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앞의 풍경 그림 부분

여행에서 절대적인 영감을 받은 후부터라고 한다. 코로의 경우는 최초 로마 여행이 그의 화풍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고 그 뒤로도 거의 10년마다 세 차례 이탈리아 여행을 더했다. 자연을 탐구한 평화로운 풍경화는 바르비종파나 뒤에 인상파 화가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작은 스케치들은 직접 자연에서 얻은 그림들이라 빛의 묘사라든가 소박한 취급이 더욱 돋보인다. 반면 대작들은 살롱 출품을 의식한 탓인지 다소 과장되고 공허한 느낌이 있는데 특히 쿠르베의 풍경과 비교할 때 그런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바람에 작은 나뭇가지나 잎들의 흔들림을 느끼게 하는 섬세한 특징들은 더 할 수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시적이다.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 열정을 느끼게 하는 그림과 평온을 찾는 그림으로 좋아하는 것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느 쪽의 작품이든 예술적 완성도에 의해 모두 감동적일 수 있을 것 같다. 현대미술에 오면 피카소와 마티스의 관계가 그러하듯 마치 관능적인 자극과 평온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다를 것 같다. 하지만 피카소의 도발적인 그림들이나 마티스의

카미유 코로, 풍경, 루브르 소장

고요하고 조화로운 그림도 모두 동일한 욕망의 다른 표현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난폭해진 감정을 달래 고요한 수면 아래로 침잠시켜주기도 한다.

들라크루아의 작품에 넘치는 열정은 권태로운 삶에 활기와 의미를 각성시켜주는 듯하다. 반면 일상 속의 고요한 평온을 추구한 듯 보이는 보수적인 성향의 코로에서는 난폭하고 거친 정서를 다스려 시적인 상태를 깨우쳐주는 것 같다. 마치 17세기 네덜란드 작가 야콥 반 루이스달이나 18세기 샤르댕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며칠 전 가본 런던 테이트모던에서는 여러 방문자들의 방명록 글을 소개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술은 비이성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인 반응이다"라고 한 말이 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지상에서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함께 살아갈 의지를 불어넣어줄 격려와 자극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은 오랜 세월 그 역할을 해온 것 같다.

카미유 코로, 풍경, 루브르 소장

김영동
– 영남대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02년, 미학 미술사 전공)
– 매일신문사 근무(1983~1998)
– 1993년부터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사와 미술이론 강의
– '김영동의 유럽미술관 기행'(2014. 10~12) 매일신문 연재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회원
–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김영동의 유럽 미술관 기행) 진행
– 저서 「근대의 아틀리에」 (한티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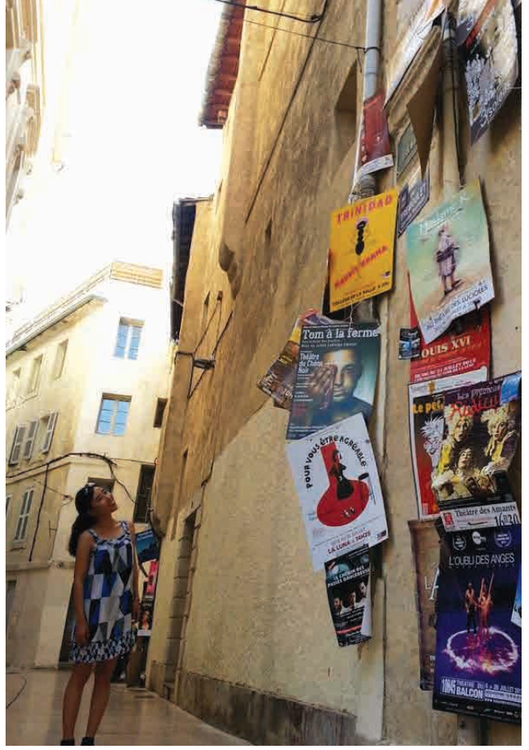
연극 같은 인생을 꿈꾸며

글 · 사진 정성희

매년 여름이 되면, 작은 고민을 한다. 어쩌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고민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고민을 즐기기도 한다. 바로 딸의 생일파티다. 무더운 여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릴 적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일을 스스로 챙기면서 엄마인 나에게까지 약간의 부담과 압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동일한 생일이지만, 매번 무언가의 새로운 이벤트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난다고 하지만, 그 울음 속에서도 함께 기뻐하고 기다리는 가족과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출생부터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사건을 동반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생일이라는 자신의 개별적인 축제날을 선물로 갖고 태어난다. 어떻게 즐기느냐를 막론하고, 출생과 함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축제일을 갖게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이처럼 함께 어울리고 흥겨워하며 축하하고 파티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연극으로 소통하는 아비뇽 축제

축제는 이러한 본능적인 의식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축제에는 공동의 일체감과 함께 흥겹고 즐거움이 존재한다. 그런 기억이 유난히 도드라지는 축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아비뇽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매년 열리는 아비뇽 축제가 있다. 이 축제는 194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전체 인구가 10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 아비뇽은 7월 둘째 주에서 마지막 주까지 3주 동안 온통 연극으로 물들게 된다. 대부분의 시작이 그렇듯이 아비뇽 축제 역시 그 시작은 아주 소박하다. 쟝 빌라(Jean Vilar)라는 사람이 교황청 안뜰 야외무대에서 연극 3편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인의 연극축제가 된 것이다. 작년에는 유아, 성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대에 오른 작품이 모두 125편에 이르렀다.



이처럼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축제, 아비뇽 축제는 단순한 오락과 소비를 위한 연극이 아니라,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나누며 하나가 되는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축제 기간 여러 작품들 가운데 일부는 불어로 진행되는 공연이 있지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언어 대신 움직임, 소리,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언어(Non-verbal) 공연도 있다. 즉, 아비뇽이라는 프랑스 도시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전문 예술단체들의 공연과 함께 신진 예술인들을 위한 무대도 제공하고 있다. 관객 역시 무료와 유료 공연으로 구분하여 즐김으로써 누구나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연극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비뇽 시민들과의 소통을 넘어서서, 연극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며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세계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파티 같은 아시테지 축제

아비뇽 축제와 같이 한 도시에서 매년 열리는 연극 축제가 있는 반면에,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이 동일한 주제를 갖고 일정한 주기에 맞추어 매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연극 축제도 있다. 그러한 축제들 가운데 하나인 아시테지(ASSITEJ) 축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시테지(ASSITEJ)는 불어의 첫 글자로서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를 의미한다. 아시테지는 1965년 파리에서 창립되어 지금은 세계 80여 개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천 명이 넘는 아동청소년 공연단체와 예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아시테지 축제는 아동청소년 연극의 필요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아동청소년 연극 축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보와 흐름을 교환한다는 취지에서 축제 개최지를 매번 새로운 곳으로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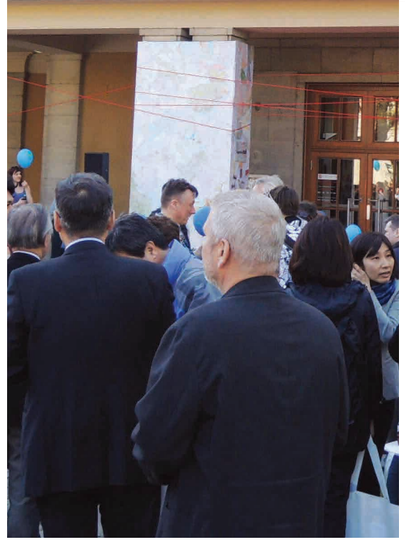
올해 아시테지 축제는 아시테지 창립 50주년 축하행사와 함께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베를린 시가 후원하는 베를린 아동청소년 연극 축제와 함께 진행했기 때문이다. 아시테지 축제는 서로 다른 언어, 인종, 국가의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연극이라는 동일한 관심사를 통하여 국경과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 모임과도 같다. 축제 기간에는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들이 무대에 오른다. 그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세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이슈와 흐름을 교환할 수 있다. 나아가서 자신의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연극의 활동과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도 축제기간에 함께 운영된다. 이처럼 축제 기간에는 공연자체의 향유와 더불어 각국 간의 공연문화 교류를 제안하고 협상하기도 한다. 아시테지 축제는 아동청소년 연극이라는 동일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생일파티처럼 세계 곳곳에서부터 모여와 만남과 교류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매년 돌아오는 딸의 생일파티,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아비뇽의 생일파티,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아시테지 생일파티. 생일파티에는 그 날의 주인공이 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함께 했던 이야기, 추억, 그리움이 있다. 가족이라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이러한 집단의 기억과 추억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공유된 집단기억이 없다면, 가족이나 공동체는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보다 큰 시각에서 본다면 이것이 다름 아닌 역사인 것이다. 작은 케이크 앞에서 짧은 생일축하 노래와 박수 속에서 가족의 구성원임을 재확인하고 가족애를 다시 느끼듯이, 어느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를 통해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면서 공동의 정서를 만들어 간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생일날을 선물로 갖게 되듯이, 공동체와 사회 역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추억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생일날과 같은 축제를 만들어 간다.

연극 같은 인생…
축제 같은 만남…

연극 축제에는 지나온 시간들의 고민과 아픔과 지금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그래선지 '인생은 연극이다.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아마도 인생살이가 기승전결, 갈등, 반전과 같은 연극적인 전개와 같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공감하는 말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본다. 연극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관객'이다. 함께 웃고 울어주는 관객이 존재해야 연극이 완성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힘겨운 걸음마다 박수와 격려, 눈물의 애틋함으로 함께 지켜보며 공감해 주는 관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생은 연극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무대 위 배우만 존재하고, 갈등과 반전의 연기만 있을 뿐 관객은 증발되어 버린 연극과 같은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관객이 존재하는 연극 같은 인생, 축제 같은 만남을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인생을 재촉할 때가 있다. 과연 과거가 없는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어쩌면 과거의 추억을 딛고 지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수록, 추억이 깊을수록 개인과 사회는 더 아름답고 건강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의 또 다른 모습으로 재생되는 것이다. 미래 역시 결코 잡을 수 없는 암담한 그 무엇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 속에서 아름답고 성실하게 영글어야 한다.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소망으로 현재에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추억의 기억과 그리움의 이야기를 담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지금을 살아간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소박한 이야기 꾸러미가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연극축제이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과거가 응축되어 있고, 미래를 품고 있는 소중한 현재의 모습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축제 속에서 우리는 연극 같은 인생을 꿈꾸며 성숙해져 간다.

정성희
– 계명대학교 연극예술과 겸임교수
– 극단 콩나물 대표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 뉴욕대학교 교육연극학과 석사

「시간을 멈추는 드로잉」의 여행 작가

리모의 이야기

글 · 그림 리모

지난 3월, 38일간의 유럽 여행기를 「시간을 멈추는 드로잉」으로 출간한 작가 리모(본명:김현길)를 '동네여행 프로젝트'(달서문화재단의 여행드로잉 프로그램) 강의실에서 만났다. 전공인 컴퓨터공학 대신 그림을 선택한 매력남 리모 작가의 남다른 생각이 궁금해, 자신의 이야기를 지면에 싣고 싶다고 했더니 한 편의 그림 같은 에세이가 문화정책실로 날아왔다.

새로운 직업을 고민하던 시기에 떠난 여행이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였습니다. 공과대학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4년 가까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며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열망을 이기지 못한 채,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림'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그림여행을 통해 제 자신을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 여행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공학도에서 여행작가로

나를 걱정하는 주위 분들은 당연히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와 갑자기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니, 대부분 믿겨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저라는 사람을 굉장히 즉흥적인 부류라고 판단하더군요. 하지만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홀로 그림을 그리며 연습해 온 세월이 있었던 걸 그분들이 알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저 자신에게 현실적인 면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그림을 포기하고 공학을 전공해 개발자의 삶을 살기도 했으니까요.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기업에 입사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취감 없이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무료하게 느껴졌고, 돌이켜보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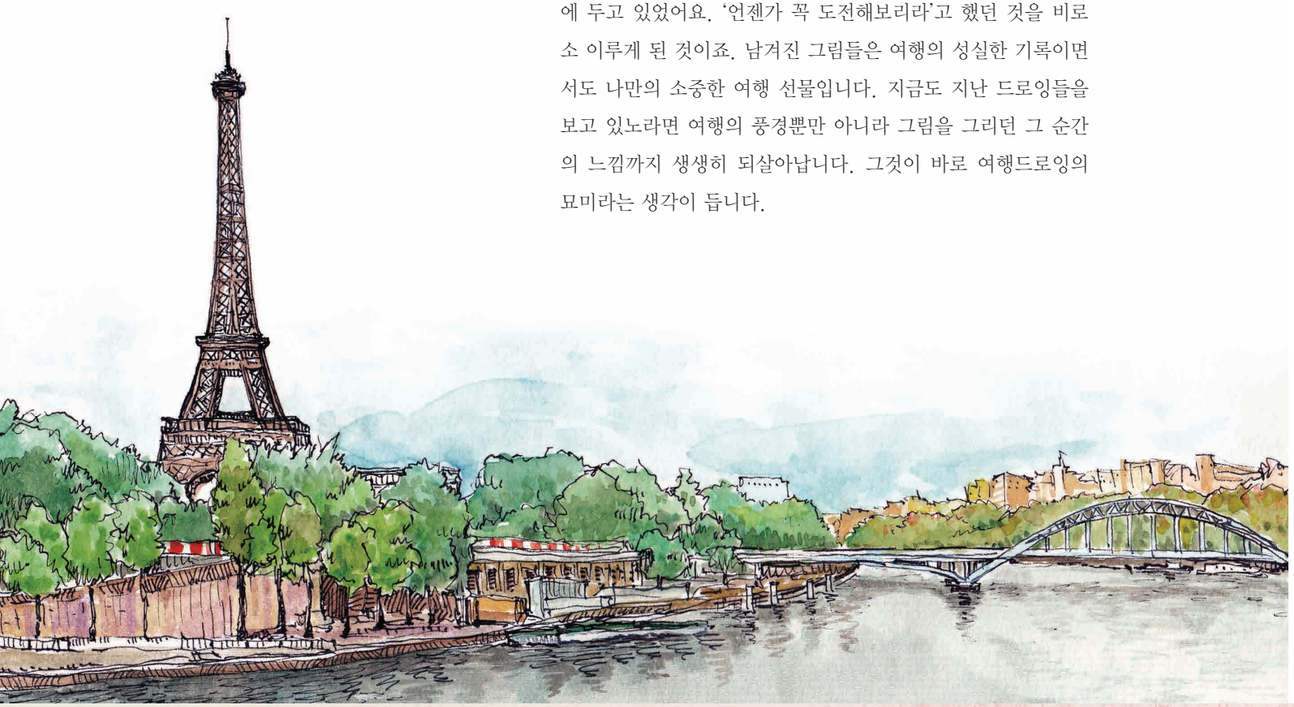
사진 대신 그림으로 담는 여행의 목표가 있었기에, 여행지를 유럽으로 정한 뒤, 아름다운 풍경을 종이에 가득 담아 오고자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체코를 거쳐 마지막으로 터키의 이스탄불을 여행했어요. 마음이 쫓기는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한번의 여행에 너무 많은 도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에 터키의 이스탄불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급하게 알아본 항공권이 이스탄불을 경유할 경우 저렴했기 때문이죠. 이런 단순한 이유로 여행의 말미에 다시 만난 이스탄불은 제게 많은 메시지를 남긴 도시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행 중에 정말 많은 드로잉을 남겼지만, 그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그림은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에서 그린 성당 그림입니다. 골목길 벽에 등을 기댄 채 하이테크 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군요. 열심히 그리고 있던 드로잉에 빗방울이 튀어서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빗방울이 튄 자국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혼자 그린 드로잉이 아니라 베른의 빗방울이 같이 완성한 느낌에 묘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납니다. 당시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번 책에도 그림과 함께 수록해 놓았답니다.

「시간을 멈추는 드로잉」

「시간을 멈추는 드로잉」 책을 '사진 대신 드로잉으로 담은 아름다운 유럽 여행기'라고만 생각한다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의 절반 정도만 얻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드로잉 여행은 저의 내면을 좀 더 깊고 솔직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었고, 인생의 전환점에 있는 한 남자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긍정적인 자신감을 선물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서투른 여행 기록 안에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모범답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평범한 직장인이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책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의미가 되길 바라기보다는 저의 여행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힘든 현실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림으로 남기는 나의 여행 기록. 예전부터 정말 해보고 싶던 일이었습니다. 책을 기획하기 훨씬 전부터 그런 로망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언젠가 꼭 도전해보리라'고 했던 것을 비로소 이루게 된 것이죠. 남겨진 그림들은 여행의 성실한 기록이면서도 나만의 소중한 여행 선물입니다. 지금도 지난 드로잉들을 보고 있노라면 여행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던 그 순간의 느낌까지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드로잉의 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여행을 꿈꾸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행은 낭만적인 행위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다만, 나의 여행이 다른 이들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로맨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작은 모험인 동시에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화려한 여행을 위한 뛰어난 스킬이나 정보력 보다는 자신의 여행 과정을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여행자로서의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상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여행자는 유럽의 평범한 골목에서도 환희를 맛보게 되고 타인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의 매력을 느낄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행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을 멈추는 드로잉」을 통해 책을 집필하는 성취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림 전시뿐만 아니라 꾸준히 일상과 여행을 담은 에세이를 집필할 예정입니다. 세상을 때론 진지하게, 때론 유쾌하게 바라보고 나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고민의 흔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여행지에서 그리고 책으로 오래도록 나누고 싶습니다.

리모(김현길)

– 여행과 일상을 드로잉으로 기록하는 여행작가
– 달서문화재단 여행드로잉 (동행 프로젝트) 진행
– 사단법인 여행작가협회 회원,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활동 중
– 현대 리바트 웹진 등에 드로잉 여행기 기고, 다수의 책표지, 지면광고 일러스트 작업
– 38일간의 유럽 여행을 드로잉으로 엮은 에세이 「시간을 멈추는 드로잉」 출간

art event

'문화만개'에 실리는 단신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진행된
공연, 전시, 강좌 및 달서구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김현지의 달콤한 클래식

**공연도 즐기고, 우리 아이들 감성도 키우고,
아프리카 아이들도 돕고…**

지난 4월 1일 저녁 7시 30분,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열린 [김현지의 엄마가 들려주는 달콤한 클래식]은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로 우리 마음에 '아름다움'과 '소중함'의 의미를 남겼다. 따뜻하면서도 이지적인 김현지의 바이올린과 나인국의 그윽한 첼로, 낭만적인 김일지의 플루트, 안정된 김범준의 피아노 등 연주자들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무대였다.

비발디 사계 중 '봄', 엘가의 '사랑의 인사',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등 부모와 아이가 부담 없이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하며,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연주자의 친절한 설명은 우리 아이 감성 키우기에 팁을 더해주는 보기 드문 클래식 공연이었다.

특히 공연 전 마련한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LOVE BAG' 이벤트에도 관객들이 흔쾌히 동참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으며, 공연 중 펼쳐진 음악 퀴즈에서는 아이들의 환호와 열성도 대단했다. 관객들은 "의미 있는 훌륭한 연주와 함께 퀴즈와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져 아이들의 예술 감각을 일깨우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관람 후기를 전해왔다.

지난 4월 1일 와룡홀에서 열린 〔김현지의 달콤한 클래식〕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 아카데미

생활문화예술을 실현하다

'나도 예술가' 중 고전무용 발표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예술 아카데미]는 클래식, 국악, 실용음악, 서양화, 동양화, 도예, 서예, 공예 등 110여 개의 실기 위주의 강의로 진행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강생 발표회 '나도 예술가'를 통해 생활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예술 활동의 실현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 수강생들의 관심과 만족도도 높다.

2015년 봄에는 예술 · 인문학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인문학을 들여다보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김영동의 유럽 미술관 기행]의 수강생들은 "김영동 강사가 직접 찍은 생생한 미술관 사진과 강사 특유의 편안한 해설로 마치 유럽 미술관을 함께 여행하는 듯하다."고 입을 모은다.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강좌는 우수한 강사유치와 다양하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생활 예술 확대와 '관람자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참여하는 예술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복지와 생활 속 여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문의 | 053)584-8721, www.dscf.or.kr

'ㅅ' 문화콘서트

그야말로 달서구민의, 달서구민에 의한, 달서구민을 위한 콘서트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람이 선하고 사랑으로 소통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ㅅ' 문화콘서트는 달서구 관내 22곳의 동네를 찾아가며 선보이는 공연과 퍼포먼스로 입소문이 났다. 지난 4월 26일 서남시장 중앙광장에서 열린 첫 번째 거리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구민이 즐거운 무대를 진행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병암서원에서 열리는 고택 음악회, 광복절 기념 콘서트, 청소년 힐링 콘서트, 임산부를 위한 콘서트 등 10월 31일까지 13번의 거리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각 동마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달서구 지역의 문화리더를 중심으로 생활 예술인을 비롯해 '우리 동네 예능인'으로 선발된 특기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무대로 그들의 실력을 관객들에게 가감 없이 들려줘 감동의 시간을 나누게 된다. 달서구 문화체육과에서는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찾다보니, 우리 동네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가수가 되고, 연주자가 되는 셈.^^

Schedule 'ㅅ'문화콘서트 일정

횟수	일 시	장 소	내 용
1	7/4(토) 16:00	상인역광장(상인1동)	도시철도 이용객과 함께~ **작은 음악회**
2	7/11(토) 19:00	병암서원(용산2동)	**고택 음악회**(주민과 고택체험 참여자)
3	7/25(토) 19:00	용산역광장(용산1동)	주민과 함께~ **한여름 밤 음악회**
4	8/15(토) 19:00	본리공원(본리동)	**광복절 기념 콘서트**(밴드)
5	8/22(토) 19:00	한샘공원(월성1동)	**한여름 밤 음악회**
6	9/5(토) 17:00	월촌네거리(송현1동)	주민과 함께~ **작은 음악회**
7	9/9(수) 14:00	영남고등학교 강당(상인1동)	**청소년 힐링 콘서트**
8	9/15(화) 14:00	달서노인종합복지관(본동)	어르신과 함께~ **문화콘서트**
9	9/25(금) 15:40	상서고등학교 강당(성당동)	**청소년 힐링 콘서트**
10	10/7(수) 16:00	레드블록(계대 앞)	대학생과 함께~ **문화콘서트**
11	10/10(토) 14:00	대구수목원(진천동)	임산부의 날(10/10) 기념 **태교음악회**
12	10/17(토) 16:00	성서산업단지(공단협의)	근로자와 함께~ **문화콘서트**
13	10/31(토) 19:00	월광수변공원(도원동)	10월의 마지막 밤~ **작은 음악회**

※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선사시대로 Prehistoric Way

2만년을 이어온
선사시대로 여행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선사인(先史人)들이 살기 시작한 달서지역은 청동기시대 유물은 물론 대구에서 유일하게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어 대구의 역사를 2만년으로 끌어올린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소중한 달서 문화유산 탐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천동 입석

대천동 청동기유적

B코스

월성동 구석기유적

- **A코스** 진천동 입석(선사유적공원) ~ 진천동 고인돌(지석묘)
- **B코스** 대천동 청동기유적(한샘공원) ~ 월성동 구석기유적(조암공원)
- **C코스** 자유선택 | 월암동 입석, 상인동 고인돌, 상인동 입석, 월곡역사박물관 등

※ 탐방신청 : 달서구청 홈페이지 참고

☎ 053)667-2174(문화체육과)

2015 선사문화축제

탐방모습

4th
2015

대구수채화
전국공모미술대전

DAEGU WATERCOLOR ARTISTS ASSOCIATION

2015년 7월 14일~7월 19일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장기동) 전화:053)584-8720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여/름/특/별/기/획

Amazing Duo In Summer Night

Piano 남 자 은

Soprano 류진교 & Bass 박문규

2015. 7. 10 | 금 | 저녁 7시 30분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 주최 |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 문의 | 웃는얼굴아트센터 584-8719 | 관람연령 | 5세 이상
| 입장 | 무료 (좌석권 1인 2매에 한하여 선착순 배부) | 전석 초대 |

Smiling Dalseo

어깨고 서화 세상 - 달서

스마일 토크 콘서트 04

성기문의 All that Jazz

2015. 8. 5. WED 저녁 7:30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피아노 _ 성기문 | 윤복희 밴드, 웅산 밴드, 찰리정 밴드 활동 중, 대구예대, 서울종합예술원, 한서대 출강
드럼, 아코디언 _ 정태호 | 라벤타나 리더, 백제예술대 출강
베이스 _ 강성민 | 동아방송예대 졸업, 이영경 트리오 활동 중
보컬 _ 박재홍 | 미8군 블루스밴드, 찰리정 블루스밴드 보컬

전석 무료 초대 | 선착순예약 7월 27일~31일 T.053.584-9712
관람연령 8세 이상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